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181-01

전쟁사와 국방정책 2019-2

국방역사 편찬과정 및 발전방안 연구

박 균 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와 국방정책 2019-2

국방역사 편찬과정 및 발전방안 연구

박 균 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Contents

발간사

Ⅰ. 서 론 ····· 5

Ⅱ. 국방역사 편찬의 기원 ····· 9
1. 전사편찬의 효시『한국전란 1년지』
2. 군사편찬연구소의 역사와 국방역사 편찬

Ⅲ. 정기 국방역사서 편찬 과정 ····· 25
1. 국방역사 편찬 기구의 편성 및 편찬 체계
2. 국방역사 편찬 실태 및 문제점
가. 조직편성 및 인적자원 구성 측면
나. 연구편찬 업무체계 측면
다. 자료수집 및 관리 측면

Ⅳ. 정기 국방역사 편찬 발전방안 ····· 65
1. 임무수행이 가능한 편성 / 인사관리제도 보완
2. '군사업무담당'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증대
3.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4. 활용성 높은 역사서 편찬 및 관리체계 구축

Ⅴ. 결 론 ····· 77

참고문헌 ····· 81

용어의 정의 ····· 83

발 / 간 / 사

과거의 경험은 미래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 군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문성을 강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군사연구기관은 역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료수집, 공간사(公刊史) 편찬, 전사교육과 연계, 유물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사인 국방역사 연구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활동으로 정기국방역사서의 편찬은 연구기관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등 나라마다 그 방식이 다르지만, 그 대상 범위를 부대편성과 작전 위주에서 점차 사회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면서 군사역사 발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국내 군사역사 전문연구기관은 전사편찬위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6·25전쟁 와중에서 출발한 우리 군의 군사편찬업무는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군사사 차원에서 연구분야의 영역을 확대하여 오늘날 국방역사 편찬을 제도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지금은 각 군의 군사연구소와 역사기록관리단에서 국방정기역사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연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동안 군사편찬연구소를 비롯한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사료수집, 특정 주제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국방역사에 관련된 논의는

지속되었지만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국방역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기 국방역사 편찬과정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이번 연구는 군사사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특별히 이번 연구에서 국방정기역사서의 기원을 살펴보고, 국방역사 편찬 기구 및 편찬 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군사전문연구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가 정기 국방역사 편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실무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장 **조 성 훈**

Ⅰ. 서 론

Ⅰ. 서 론

'훌륭한 역사 연구 및 편찬'은 '훌륭한 기록관리'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역사 연구·편찬에 있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말이다. 사실(fact)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관리하여야 훗날 역사 연구 및 편찬에 있어서 사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육군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이래 기록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전쟁시 미군은 개전 초기부터 전장에 역사가들을 배치하여 기록을 하고, 역사 서술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고, 방대한 양의 기록들이 국가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에 철저히 소장 관리되고 있다.[1)]

역사 연구·편찬을 위한 기록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역사의 중요성 인식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적인 시각으로 정확한 사실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의 기록이 더욱 중요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관련 키워드에 대한 자료가 넘쳐난다. 특히 잘 포장된 거짓 정보가 진짜 정보를 잠식해버려 독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고 집필하는 학자나 실무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공해 속에 진실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객관성 있고 정확한 역사서를 집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 본부는 해당 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기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이곳에서 국방에 관련된 공간사(公

1) 김득중, 「공간사 연구편찬 절차 및 요령」, 『군사업무담당 소집교육 및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 2.

刊史)[2]가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사에는 국방부의 정기역사서인 국방사, 국방부사, 국방편년사, 국방조약집, 국방정책변천사, 국방사건사 등이, 각 군에는 각 군사(육군사, 해군사, 공군사 등), 단위 부대별 부대사, 병과별 변천사/발전사 등이 있다.

국방관련 역사서를 편찬하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정기 국방역사의 편찬 절차상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이며 역사를 집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자료수집이다. 우선 좋은 1차 사료가 수집되어야만 그 자료를 기초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닌 연구편찬자의 노력을 통해 완전한 역사서가 편찬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1차 사료를 제공하는 실무자나 부서장의 관심과 의식에 따라 부대나 부서별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국방분야는 우리의 안보적 현실로 인해 보안유지가 필요한 비밀자료가 많기 때문에 『국방부사』(Ⅱ급비밀)나 『국방사』(대외비)는 비밀 책자로 발간되며, 그로 인해 많은 독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당시의 자료가 온전하게 관리·보존되고, 이러한 자료가 왜곡됨 없이 올바로 기록되어질 때 현재와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성 있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공간사의 편찬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본 책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한하여 우리나라 국방정기역사의 편찬체계 변천과정과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에서 발간되는 국방정기역사서 편찬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수행, 자료수집, 발간체계 등 각 군의 연구편찬체계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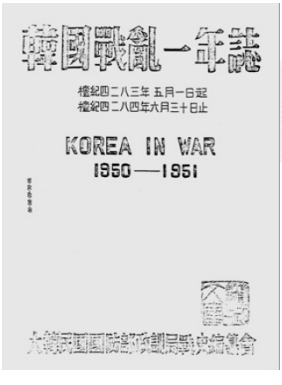
2) 公刊史(official history)란 국가 또는 공적기관이 발간하는 공식적인 역사서를 의미한다.

Ⅱ. 국방역사 편찬의 기원

Ⅱ. 국방역사 편찬의 기원[3]

1. 전사편찬의 효시『한국전란 1년지』

창군 이후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전사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중이었다.[4]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박사[5]는 전황 위주의 전사기록을 매일 일기형식으로 기록하던 중 7월 초 후퇴작전 중이던 대전에서부터 정훈국에 전사계를 편성하고 문관들에게 전황과 국내외정세를 위주로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때의 전사기록이 현대 전사편찬의 효시가 되었다.



『한국전란 1년지』

서울수복 이후 전황이 회복되고 1950년 10월 중순 임시기구로 '전사편찬회'를 편성하면서 이병도 박사[6] 등 역사학계 권위자들이 참여하여 19명의 전문가로 편찬업무를 시작하였다.

1951년 1월 15일 국방부 정훈국 예하 정식기구인 '전사편찬회'로 개편하여 공식적인 전사편찬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전사편찬업무를 시작한 전사편찬회는 1951년 10월 15일 우리軍 최초의 공간사인『한국전란 1년지』를 발간

3) 본 장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사진 및 도표는『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에서 발췌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4) 공식적인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육군본부 고급부관실에서 손으로 작성된 육군전사(前史)일지(제1집), 육군역사일지(제2집), 국군역사(제3집)의 합본인『육군역사일지(1945~1949』등이 존재한다.
5) 이선근(李瑄根, 1905.5.11.~1983.1.9.): 대한민국 교육자, 언론인, 역사학자로 서울대 교수, 문교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영남대·동국대 총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역임
6) 이병도(李丙燾, 1886.9.20.~1989.8.14.): 대한민국 역사학자, 교육인, 대학교수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교부장관 역임

하였다. 『한국전란 1년지』는 1950년 5월 1일부터 1951년 6월 30일까지 일어난 사실과 이에 대한 자료를 다룬 것으로 제1부 개설편, 제2부 일지편, 제3부 문헌편, 제4부 통계편, 도표와 각 위원의 집필개설 항을 설정하고 있다. 제1부 개설편의 집필진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당대 역사분야의 많은 명사들이 참여하였다.

〈도표 1〉『한국전란 1년지』 제1부 개설편 집필진

ㅇ총설 : 이병도　　ㅇ전투개황 : 김원룡　　ㅇ정훈전소사 : 이선근 ㅇ국내정세 : 신도성　　ㅇ국제정세 : 이용희　　ㅇ적색괴뢰의 정체 : 김상기 ㅇ역원 : 한우근, 전해종, 정병학, 민석홍, 강신항, 정양완 등

특히 『한국전란 1년지』에는 당시 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유엔 한국위원단장 파키스탄 대표, 주한 미국대사, 주한 영국대리공사, 주한중국대사관 참사관 등의 서문이 실려 있어 전란지 편찬을 통해 국내·외적 지원과 우방국가의 연대를 호소하여 통일을 위한 결속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조직과 편성면에서 안정된 전사편찬회는 이어서 1953년 1월 25일 『한국전란 2년지』를 발간하였다. 『한국전란 2년지』는 1951년 7월 1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책의 구성은 1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부 개설, 제2부 일지, 제3절 문헌, 제4부 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은 국방부장관, 차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UN군 총 사령관, UN군 해군·공군사령관의 글이 실려 있다.

휴전 후 국방부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1953년 8월 5일 전사편찬회는 정훈부의 전사과로 흡수 통합되었다. 따라서 『한국전란 3년지』는 국방부 정훈부(전사과) 주관으로 편찬되어 1954년 3월 1일 발간되었다. 이후 국방부의 조직개편으로 국방부 정훈국(일반교육과 편찬과)에서 1955년 6월 1일에 『한국전란 4년지』, 1956년 7월 20일에 『한국전란 5년지』가 각각 편찬되면서 '전사편찬회'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2. 군사편찬연구소의 역사와 국방역사 편찬

국방역사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본 절에서는 군사편찬연구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국방역사의 편찬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술하였다.

〈도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혁[7]

○ **1950. 10 : 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설치**
- 전시편성 19명(역사전문가 19)
- 「한국전란지」편찬(총 5집 편찬)

○ **1964. 8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발족** (자문기관 기능)
- 정원 42명(군인 28, 일반 14),
- 「한국전쟁사」 편찬(총 11권, 1970~80)

○ **1980. 3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개편**
- 정원 59명(군인 14, 일반 45)
- 민간연구위원 중심체제로 전환

○ **1992. 1 :「국방군사연구소」로 개편**
- 정원 52명, 전쟁기념사업회 부설, 업무상 국방부 통제

○ **1999. 1 :「국방군사연구소」구조 조정**
- 정원 38명(50명 → 38명),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 국방부 조직 진단을 통해 2000. 8. 21.자로 국방군사연구소 해체

○ **2000. 9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창설**
- 정원 41명, 국방부 직할기관

※ 대통령령 제1694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00.8.17)

군사편찬연구소의 태동은 1950년 전쟁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10월 창덕궁 내에 위치한 이왕직(李王職) 사무실에 국방부 '전사편찬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1956년 7월 '전사편찬회'의 임무가 종료된 후 국방부에는 별도의 역사편찬기구가 없었다. 그 이후 1964년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5 5년사』 pp. 4-9.

공식적인 국방부 편제로 '전사편찬위원회'로 발족[8]하여 현재의 군사편찬연구소로 발전하게 된다.

1963년 당시 김성은 국방부장관은『한국전쟁사』편찬을 위해 관련기구 편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 2월 28일 국방부에 '전사편찬위원회'가 설치[9]되고, 3월 6일 초대 위원장으로 문희석[10] (예)해병 준장이 취임하였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식 편제되기 전의 기구였지만, 195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군의 역사편찬기구의 부활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작이었다.

〈도표 3〉 전사편찬위원회 최초 편성(1964. 2. 28.)[11]

이렇게 설치된 '전사편찬위원회'는 1964년 8월 7일 최초 법적 근거(정부조직법 제4조[12])인 대통령령 제1904호[13]에 따라 한국전쟁사 편찬 발간과 사료수집 및 연구발전을 목적으로 국방부의 공식기구가 되었다. 공식적인 국방부 기관으로 발족된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전사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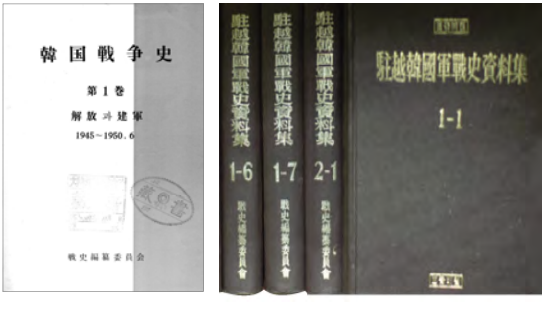
8) 2016년 연구소 역사를 재정립하면서 공식적인 국방부 편제로 반영된 1964년 전사편찬위원회 발족을 연구소의 창설기념일로 정하였음.
9) 국방부,「국방부 일반명령 제4호」(1964.2.24.)
10) 문희석(文凞奭, 1922.1.18.~1977.1.10.) : 대한민국 군인, 교육인, 대학교수로 5·16군사정변기 문교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1964년 3월 6일부로 전사편찬위원장에 취임하여 1970년 3월 25일까지 근무함(국방대학교 행정기획실장, 건국대학교 총장을 겸직하며 주 1일 정도 근무)
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35쪽
12) 정부조직법(1963.12.17. 시행) 제4조.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시설연구시설·문화시설·공공시설·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3)「전사편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04호」(1964.8.7.)에 의거 42명을 정원으로 편성

4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쟁사』 편찬을 본격적으로 착수[14]하였다. 1964년 8월 18일부로 작성된 이 계획에서는 "공정한 한국전쟁사를 편찬하여 전쟁교훈을 도출함으로써 군작전과 군사 및 국민교육에 기여"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를 해방 이후의 국군 창설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의 종합적인 전사(UN군 포함)를 편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한국전쟁사 편찬을 위한 「전사편찬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표 4〉와 같다.

〈도표 4〉 「전사편찬 4개년계획」 개요[15]

연차별	사업 구분	내 용
1년차(1964년)	사료수집	국내외에 걸쳐 사료수집
2년차(1965년)	사료정리	
3년차(1966년)	원고작성	• 전사원고의 완성 • 요도 작성
4년차(1967년)	발 간	• 국한문 종합전사 출판 • 축소판 출판 • 축소 외국어판 출판 • 배 포

이 계획에 의해 사료수집에 역점을 두고 집필을 시작한 전사편찬위원회는 1967년 10월 31일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제1권이 발간되고 다시 「전사편찬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한국전쟁사 편찬을 이어나갔다.



한국전쟁사 제1권 /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이 10개년계획에는 월

14) 전사편찬 4개년계획의 편찬 원칙 : 국수주의적 색채와 군별 및 전투원의 이해관계 초월, 엄정한 사료에 의한 공정 기록, 역사학 출신 편수관(編修官)에 의한 집필, 연차순으로 편찬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93쪽

남파병에 관한 공간사의 편찬계획도 포함되었다. 특히 공간사(公刊史)의 객관적인 편찬을 위해 관련 전사자료집의 발간이 병행된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따라 1966년 9월에는 파월전사실(派越戰史室)을 설치하고 당시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전사 자료수집 및 전사편찬을 병행하였다. 『주월한국군전사』는 1967년 제1권의 발간에 이어 10여 년에 걸친 연속적인 편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수립된 「전사편찬 10개년사업계획」은 〈도표 5〉와 같다.

〈도표 5〉「전사편찬 10개년사업계획」 개요[16]

연도별	사업종별	권수	발행부수	비고
1964.3	· 전사편찬위원회 설치 · 사료수집			
1965	· 사료수집			
1966	· 사료수집 · 한국전쟁사 연구(제1, 2집) 발간 · 주월한국군 전사사료집(2-1)	3	500부 200부	
1967	· 한국전쟁사 제1권 발간 · 주월한국군전사 제1권 발간 ·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1-1~1-3)	5	1,000부 600부 각 200부	양장
1968	· 한국전쟁사 제2, 3권 발간 · 주월한국군전사 제2권 발간 ·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1-4~1-5) 발간	5	2,000부 600부 400부	양장
1969	· 한국전쟁사 제4, 5권 발간 · 주월한국군전사 제3권 발간 ·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1-6~1-7) 발간	5	2,000부 600부 400부	양장
1970	· 한국전쟁사 제6, 7권 발간 · 주월한국군전사 제4권 발간 ·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1-8) 발간	4	2,000부 600부 200부	양장
1971	· 한국전쟁사 제8, 9권 발간 · 주월한국군전사 제5권 발간 ·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1-9~1-10) 발간	5	2,000부 600부 200부	양장
1972	· 한국전쟁사 제10, 11권 발간 · 주월한국군전사 제6권 발간 ·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1-11~1-12) 발간	5	2,000부 600부 200부	양장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98쪽

연도별	사업종별	권수	발행부수	비고
1973	· 한국전쟁사 제12권 발간 · 한국전쟁사 종합단행본 발간 · 한국전쟁사 종합판(외국어) 발간 · 한국전쟁사 수정 및 증보판 발간	7	1,000부 1,000부 6,000부 1,000부	영 3,000부 불 1,000부 중 1,000부 일 1,000부

당시 전사편찬위원회는 1956년 1월 1일 국방부 정훈국 교육과의 편찬계에서 전사 편찬과 일반 교재 편찬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1962년 6월 23일부로 정훈국 정훈과에서 수행한 국방사 편찬업무와 1963년 12월 16일부로 국방부 정훈국이 정훈섭외국으로 개칭되면서 그 예하 정훈과에서 수행하던 국방사 연구 및 편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체계의 변화는 전후 정훈국 전사과에서 수행하던 전사계의 업무와 부사(부대사)계의 업무를 계승하되,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전사편찬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두 차례의 편찬계획은 1973년까지 한국전쟁사의 완간을 목표로 하고, 이와 동시에 『파월한국군전사』의 일부를 간행하기로 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도표 6〉「제2차 전사편찬 5개년 계획」 개요[17]

구분	한국전쟁사	파월한국군전사	유엔군전사	발행권수
1975년	제8권 휴전과 휴전선의 확정기	제7권 ('69. 7. 1~12. 31)	제4권 (미국군 편)	3권
1976년	제9권 휴전회담	제8권 ('70. 1. 1~6. 30)	제5권 (휴전전후 편)	3권
1977년	제10권 후방전사, 인사편	제9권 ('70. 7. 1~12. 31)	제2차 세계대전사 (자료수집)	2권
1978년	제11권 후방전사, 군수편	제10권 ('71. 1. 1~6. 30)	제2차 세계대전사 제1권	3권
1979년	개정판 제1권 ('45. 8. 16~'50. 6. 24)	제11권 ('71. 7. 1~12. 31)	제2차 세계대전사 제2권	3권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100쪽

그러나 계획은 수정되어 〈도표 6〉과 같이 「제2차 전사편찬 5개년계획」으로 보완되었고, 1980년 이전까지 한국전쟁사(총 12권)를 완간하고, 일부 개정판(개정판 제1, 2집) 발간과 더불어 베트남전 파병에 관한 공간사 및 자료집 발간을 함께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한국전쟁사』의 개정판과 『파월한국군전사』, 그리고 『History of UNF in the Korean War』(유엔군전사) 등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전사편찬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었다. 전사편찬위원회는 『한국전쟁사』와 『파월 한국군전사』 편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점차 전사편찬기관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베트남 파병관련 편찬사업 결과는 아래 〈도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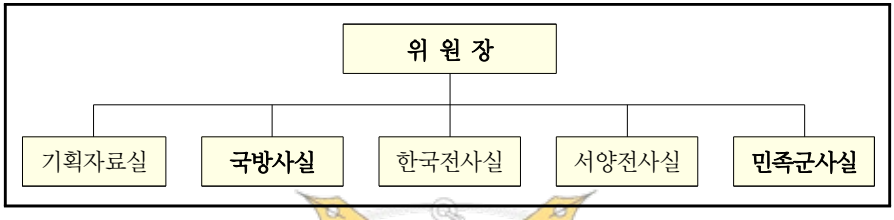
〈도표 7〉 베트남 파병관련 편찬사업 결과[18]

구 분	편 찬 물	연 도	부수
주월한국군전사 (3권)	제1권('64~'66. 6) 제2권('66. 7~'67. 6) 제3권('67. 7~'68. 6)	'67. 12. 30 '68. 12. 30 '69. 12. 30	600 600 600
파월한국군전사 (11권)	제3권('67. 7~'67. 12) 제4권('68. 1~'68. 6) 제5권('68. 7~'68. 12) 제6권('69. 1~'69. 6) 제7권('69. 7~'69. 12) 제8권('70. 1~'70. 6) 제1권(상) : '64. 9~'66. 3(개정판) (하) : '66. 4~'66. 12(개정판) 제2권 : '67. 1~'67. 6(개정판) 제9권('70. 7~'71. 12) 제10권('72. 1~'73. 3)	'71. 10. 30 '72. 12. 24 '73. 12. 1 '75. 3. 20 '76. 7. 20 '77. 9. 20 '78. 10. 1 '79. 11. 10 '81. 12. 10 '83. 12. 24 '85. 12. 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주월한국군 전사사진집(2권)	제1집('64. 9~'70. 6) 제2집('66. 7~'67. 6	'70. 9. 30 '74. 10. 1	1,200 1,200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8권)	2-1(영인본), 1-1(영인본), 1-2(영인본), 1-3(영인본), 1-4(영인본), 1-5(영인본), 1-6(영인본), 1-7(영인본)	'66. 12. 15 '67. 12. 30 '68. 12. 30 '69. 12. 15	200 각 200 200 각 200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109쪽

전쟁사 위주의 편찬업무에 국한되었던 연구소는 1979년에 장·차관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보좌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사편찬위원회는 전사편찬영역을 확대하여 군사편찬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운영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0년 3월에 1차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도표 8〉과 같이 국방사와 민족군사에 대한 편찬기능을 추가하고 연구원을 59명[19]으로 증편하였다.

〈도표 8〉 전사편찬위원회의 1차 개편 편성(1980. 3.)[20]



1980년 10월 1일에는 「편찬지침」을 마련하여 군사 및 전사, 기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한 편찬 및 집필의 요령에 관한 제도적인 체계를 세웠다. 당시 지침에는 편찬목적, 간행종류, 편찬내용 및 일정, 간행서의 규격, 원고의 심의와 수정, 집필위원의 계획작성 순서, 편찬집필 요령, 전훈도출 요령, 요도작성 요령, 그리고 증언청취 요령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후 편찬지침은 군사사 편찬의 체계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공간사(公刊史)로서 편찬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편찬사업계획 및 관련이론이 반영되어 「군사사 편찬업무 일반지침」으로 보강되었다.[21]

그러나 위원회는 국방부령 제324호('80. 6. 20)에 의해서 편성된 5개 분과위원회 개념의 편찬조직에도 불구하고, 4개(기획자료실, 국방사실,

19) 군인 14명(중령 4, 소령 4, 사병 6 : 방위병)과 일반 민간인 45명(위원장 1, 위원 34, 서기 10)으로 증편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56쪽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61쪽

전사실, 민족군사실)의 조직체제로 축소 운영되다가, 1982년 4월에 인력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현역인력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였다.

1986년 11월 20일 전사편찬위원회는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차 직제개편을 단행하였다. 개정된 사항은 제4조 제1항의 내용인데,[22]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다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이로써 전사편찬위원회의 최고 관리자에 대한 임기를 명시하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전사편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전사편찬위원회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23]을 재정립했는데 편성은 아래 〈도표 9〉와 같다.

〈도표 9〉 전사편찬위원회의 편성(1986. 11.)[24]

그러나 전사편찬위원회는 기구의 성격이 한시조직이며 연구 인력도 위촉직 민간신분으로 신분보장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적어 전문가 확보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전사편찬위원회는 조직 개선을 위해 독립법인화, 국방대학교 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기관화 등을 검토하던 중 1988년 12월 31일 전쟁

22) 「국방부령 제381호」(1986.11.20.);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1,017-406쪽.
23) 전사편찬위원회 임무 : ① 한국의 전사, 국방사, 교육용 전사교재의 편찬발간 ② 사료 및 전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전사편찬위원회 기능 : ① 한국전쟁사 및 전투사의 편찬발간 ② 국방사 및 국방부사의 편찬발간 ③ 민족군사사 및 군사문헌의 편찬발간, ④ 교육용 전사교재의 편찬발간 ⑤ 기타 국방부장관이 부여하는 사항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 8, 70쪽

기념사업회[25] 설립을 계기로 전쟁기념사업회 부설기관으로 흡수 통합되어 1992년 1월 1일부로 전쟁기념사업회 부설 '국방군사연구소'로 개편(정원 52명)되었다.

이로써 전사편찬위원회는 1992년 1월 9일, 6·25전쟁 당시 국방부 정훈국 예하의 기구로 편성되어 전사편찬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면 42년 만에, 그리고 1964년 공식적인 국방부의 전사편찬 기구로 출범한 지 28년만에 '국방군사연구소'라는 명칭의 새로운 군사연구기관으로 출발하게 되었다.[26]

공법인체로 재탄생한 연구소는 국방부의 한시기구에서 벗어나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국방군사연구소는 전사편찬위원회(4개실 41명) 대비 6개부 52명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연구원의 신분보장과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임무와 기능측면에서도 편찬 위주에서 연구영역까지 확대되어 국내 유일의 군사편찬연구전문기관으로 기반이 조성되었다.

전쟁기념관 개관 후 1996년 1월 1차 조직개편으로 전사·상자의 명

---

25) 전쟁기념관 건립은 1980년부터 추진되었다. 국방부는 1980~81년 기념관 건립연구를 시작하여 인력관리연구위(人力管理硏究委)에서 명칭을 '전쟁기념관'으로, 합참 제2국에서는 '승공전시관'으로, 정책자문위에서는 '호국박물관'으로 설정하는 연구 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사회적 격변기에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87년 유엔한국참전국협회에서 '호국군사박물관'의 건립계획을 정기국회에 건의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988년 6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부 순시 시 '전쟁기념관' 건립에 대한 관심과 의지 표명으로 동년 7월 청와대 안보보좌관실에서 '한국동란기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에 "한국동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홍보관인 동시에 6·25연구실로서 활용"하는 기념관 건립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기념사업추진위'가 결성되어 동년 12월 31일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제정 공포되었다.(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건립사』, 1997, 55~65쪽에서 발췌)

26) '국방군사연구소' 설치로 「전사편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3,694호」('92.7.9.)에 의하여 「전사편찬위원회의 규정-대통령령 제9804호」('80.3.8.)은 폐지됨

예선양을 위한 '선양사업부'가 신설되고, 1998년 1월 2차 조직개편 시에는 '북한군사부'를 신설하여 북한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1998년 12월 기획예산처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27]에 의해 1999년 1월 연구소는 인력이 52명에서 38명으로 감편되고 보조금 지급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부설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소의 갈등이 대외로 표출되면서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는 국방군사연구소의 조직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검토결과 연구소를 현역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4월 17일부로 국방부 정책보좌관실 직속으로 '국방군사연구소 개선준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5월 12일 「국방군사연구소 개선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개선계획을 근거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설치령과 기구편성을 검토하고 2000년 6월 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창설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 8월 17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제16949호)이 공포되어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방역사의 연구편찬과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그리고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연구를 위해 2000년 9월 1일부[28]로 현재의 모습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새롭게 창설되었다.

창설된 군사편찬연구소는 4부 1실로 편성되고, 정원은 38명으로 변

---

27) 민간 기업에 준하는 경쟁력과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정비하되 상위직을 우선 감축

2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제16949호」, 2000.8.17.

동이 없었으나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법적지위가 변경됨과 함께 연구원의 신분도 민간 연구원에서 별정직 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정년보장과 복지 등 복무여건이 보장된 가운데 명실상부한 군사연구기관으로의 위치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국방역사, 전쟁사, 군사사, 자료집 등 활발한 연구편찬을 통해 788권을 집필하였다.

2019년 10월 기준 연구소에서 집필한 연구편찬 실적은 아래 〈도표 10〉과 같다.

〈도표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 실적[29]

구분	국방사	전쟁사	군사사	자료집 (학술지)
수량	51	295	106	336
내역	◦ 국방(부)사(16) ◦ 국방조약집(10) ◦ 국방편년사(7) ◦ 천안함피격사건 백서 등(3) ◦ 국방정책변천사 등(13)	◦ 한국전쟁사(11) ◦ 6·25전쟁사(11) ◦ 6·25전쟁전투사 등(102) ◦ 호국전몰용사 공훈록(76) ◦ 파월한국군전사 등(25) ◦ 해외파병증언록 등(29) ◦ 민족전란사 등(41)	◦ 외국군사사연구 (35) ◦ 군사문헌집(26) ◦ 군사참고 등(24) ◦ 군사재 연구(21)	◦『軍史』지 등 연구소기관지 (122) ◦ 군사사자료집 (188) ◦ 자료목록집(22)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9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2019.10.2.

Ⅲ. 정기 국방역사서 편찬 과정

Ⅲ. 정기 국방역사서 편찬 과정

1. 국방역사 편찬 기구의 편성 및 편찬 체계

어떤 조직이든지 온전한 산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임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편성, 구성원의 전문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에는 군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연구기관이 편성되어 국방관련 공간사를 편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 편성된 국방역사편찬 기구의 편성과 기관별 편찬체계를 분석해 본다.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현재 군사편찬연구소는 전환기적인 새로운 도전에 국면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직부대를 최소화하면서 국방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예속 전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군사편찬연구소의 역사와 국방역사의 발전의 연관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의 위상과 국방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무 및 기능면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추진된다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편제표에 명시된 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 및 기능은 〈도표 11〉과 같다.

현재의 임무 및 기능을 보면 국방부 군의 역사연구 중심기관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1운동 및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국방역사 과제 추진 등 국방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요구과제와 국방사건사에 관련된 국방현안연구 TF 임무 수행 등 장관이 부여하는 과제 연구를 통해 연구소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표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임무 및 기능

ㅇ 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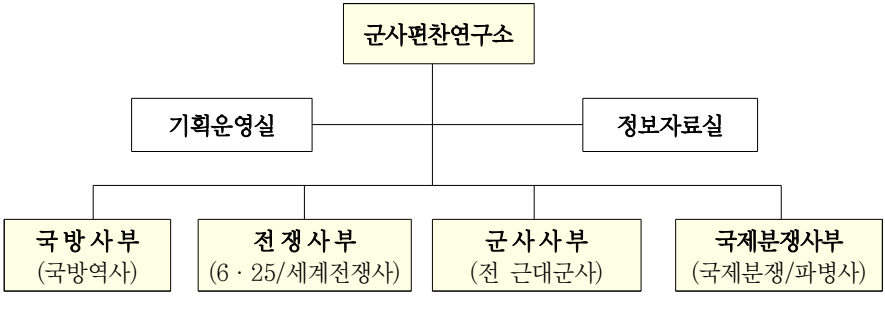
국방사, 군사사 및 전쟁사를 연구 · 편찬하고 군사작전 사료를 조사 · 연구하며 각종 군사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한다.

ㅇ 기 능

① 국방사 및 국방부사 편찬
② 전쟁사 및 전투사의 연구 및 편찬
③ 군사사, 국제분쟁사 및 해외파병사 자료의 연구 및 편찬
④ 군사작전간 민 · 군 관련 사항에 대한 사료 조사, 연구
⑤ 군사관련 사료의 조사, 수집, 보존 및 관리
⑥ 국방부장관이 부여하는 과제 수행
⑦ 국방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과제 연구
⑧ 관련기관 및 단체와 자료 ·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⑨ 전시 군사자료수집, 전례분석 · 전파, 전쟁수행 및 현안 연구과제 연구

또한 군사자료 수집·관리 및 대국민 활용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군사자료수집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인 군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성[30]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2019. 10. 2.

이러한 중요한 임무수행에도 불구하고 군사편찬연구소의 편성은 필수적인 연구원과 지원인력으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편성은 〈도표 12〉와 같이 2실 4부로 편성되어 있다. 2실(기획운영실, 정보자료실)은 지원인력으로, 4부(국방사부, 전쟁사부, 군사사부, 국제분쟁사부)는 연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원은 총 35명으로 현역 3명과 군무원 33명이다. 특히 군무원은 전문경력관 직위로 전원 박사(수료자 포함)급으로 보직되어 있으며, 국방정기역사서는 국방사부에서 연구 및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연구소의 변화 속에 국방역사를 집필하는 임무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기역사는 『국방사(國防史)』를 시발점으로 한다.[31]

국방사는 1980년 3월 8일 「대통령령 제9804호」(국방사 편찬)를 근거로 국가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①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유지에 관한 사항, ② 국가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③ 국방태세에 관한 사항, ④ 국방관계

31) 1980년 이전까지의 국방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업무는 최초에 국방부가 『國防部史』 第1輯(1954.12.20.)을 발간하고 이를 매년 발간하기로 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56년 1월 이후 전사편찬의 업무가 국방부 정훈국 소속으로 이관된 후, 1962년 6월 23일부로 정훈과에서 국방사 편찬업무를 시행하도록 규정화했고(「각령 제835호: 국방부직제」의 제8조), 그 이듬해 12월 16일부로는 정훈섭외국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했으며(「각령 제1702호 : 국방부직제」의 제11조), 다시 1970년 8월 20일에는 정훈국의 정훈과에서 국방사 편찬을 관장하도록 했다(「대통령령 제5280호 : 국방부직제」의 제15조). 그러나 1971년 「대통령령 제5515호 : 국방부직제」(1971.2.8.) 제15조의 관련사항이 삭제되어 법제상으로는 1980년 3월 「대통령령 제9804호 : 전사편찬위원회 규정」(제2조)이 성립되기 직전까지는 공식적인 국방사 연구 및 편찬은 그 기능을 수행할 부서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요사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방분야 역사서 발간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국방사(國防史)』 편찬사업은 1984년 제1집의 편찬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 제1집은 1945년 8·15광복으로부터 1950년 6·25전쟁 직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건군(建軍)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국방사』 편찬은 전사편찬위원회가 종래 전사 편찬 중심에서 군사편찬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면서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편찬을 통해 국방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로써 당시 전사편찬위원회는 1984년 『국방사 제1집』의 편찬을 시작으로 1990년 제3집까지 편찬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군사편찬의 국방정책 분야와의 연계는 『국방부사』의 편찬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국방부사』는 1985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지시[32]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직할기관의 업무실적을 정리하여 편찬한 부대사 개념의 국방부 역사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국방부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3년간을 대상으로 Ⅱ급 비밀로 발간하고 장기적으로도 대외비로 관리함으로써 국방사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신뢰성 있는 공간사의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운용하였다.

『국방부사』는 일종의 부대사(部隊史)로 국방부의 정책 추진을 포함한 일반 행정사에 해당한다. 두 편찬사업은 상호 연동적인 것이며, 『국방사』가 국가방위 차원에서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의 종합적인 기술을 다룬 것이라면, 『국방부사』는 국방사 기술의 선행단계로 국방부와 직할기관들의 국방정책과 업무 추진의 실적을 정리하는 공간사(official histor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방사』와 『국방부사』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 〈도표 13〉과 같다.

32) 국방부, 국내 24100-24(1985.8.31.) "국방부사 편찬 지시"

국방사는 국가안보, 안보외교를 포함한 전군의 국방태세 전반에 대한 10년간의 발전사 개념이고, 국방부사는 국방부본부 및 합참의 각 부서의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편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표 13〉 국방사와 국방부사의 차이점 비교[33]

구 분	주요내용	수록범위
국방사	• 국방부·합참·각 군이 수행한 국방정책·조직, 제도, 전력증강 등의 변천과정 • 전군 주요사건을 종합적 분석·편찬	• 국가안보, 안보외교, 국방태세 • 국방부, 합참, 각 군 차원의 포괄적 개념
국방부사	• 국방부·합참의 분야별 업무중심 • 추진실적을 기능별로 종합·편찬 • 국방부·합참 자료집 성격의 부대사	• 국방부/직할기관·합참 • 각 분야의 기능별 부대사 개념의 국방역사서

그런데 『국방부사』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원래 『국방부사』는 제5대 손원일 국방부장관 재임시절인 1954년 12월 15일 전사편찬회에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3월 31일까지의 국방역사를 정리하여 발간한 『국방부사 제1집』이 존재한다. 당시 1집을 발간한 이후 매년 『국방부사』를 발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발간되지 못했다. 이로써 1954년 발간된 『국방부사 제1집』은 1985년에 1983년부터 1985년까지를 망라한 새로운 『국방부사 제1집』이 발간되면서 2종류의 『국방부사 제1집』이 존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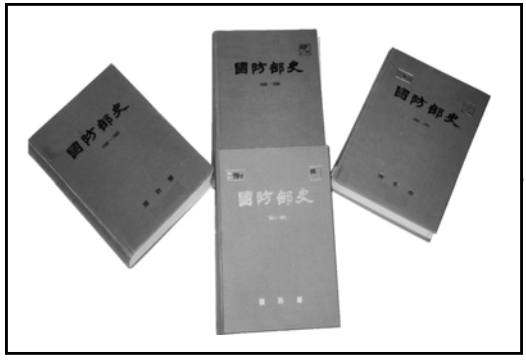
國 防 部 史
第 1 輯
大韓民國國防部

1954년 『국방부사 제1집』

현재의 『국방부사』는 제1집(1983~1985년)이 1985년에 발간된 이후 매 3년 주기로 발간되어 오다가 2016년 발간된 제11집(2013~2014)부터는 『국방백서』 발간주기에 맞추어 2년 단위로 편찬하고 있다.

『국방부사』 1차 자료는 국방부 국·실과 국직부대, 합참, 그리고 각

33) 김종숙, "국방역사 연구편찬에 관한 제언", 2012.5.22., 9쪽



現 군사편찬연구소 발간『국방부사』

군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최초에는 국방부 각 부처의 내용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종합하여 당시 전사편찬위원회로 제공되던 것이 1986년 11월 12일 이후에는 바로 국방부 부·실에서 전사편찬위원회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를 단순화하였다.

2003년 국방부훈령인 군사(軍史)업무훈령이 제정된 이후에는 정기역사[34]의 일환으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에게 매년 3월 말까지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앞서 기술한『국방사』와『국방부사』 외에『국방편년사』,『국방조약집』,『국방정책변천사』,『국방사건사』 등의 정기역사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사업기준은 아래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국방정기역사 연구 편찬사업 기준[35]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국방사	• **매 10년 주기 작성**(X-29년 ~ X-20년) * 대상기간 10년, 대상기간 종료 후 20년차 편찬 착수 * 사업기간 2년	1~5집까지 발간 (1945~1990)
	※ 국방정책, 제도, 조직, 군비 등의 변천과정과 주요사건 등을 종합정리 ※ 대외비로 발간, 3년 후 평문으로 등저	
국방부사	• **매 2년 주기 작성**(X-2년 ~X-1년) : 비밀 발간 * 대상기간 2년, 대상기간 종료 후 2년차 편찬 착수 * 사업기간 2년	1~11집까지 발간 (1983~2014)
	※ 국방부 본부/직할기관(부대), 합참의 주요 업무실적을 기능별로 종합기술 ※ 발간 시 Ⅱ급, 5년 후 Ⅲ급, 10년 후 대외비로 등저	

34)「군사(軍史)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103호」 제12조(정기역사) ①항
35)「군사업무훈령」(2017.12.26.) 제5조, 연구·편찬발간 예규(2016.8.1.) 제4조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국방 편년사	• **매 5년 주기 작성**(X-10년 ~ X-5년) * 대상기간 5년, 대상기간 종료 후 5년차 편찬 착수 * 사업기간 1년 6개월	1~7집까지 발간 (1971~2012) *1976~80 미발행
	※ 국방관련 주요 정책, 제도, 사건 등을 연·월·일 단위로 기록	
국방 조약집	• **매 2~3년 주기 작성**(X-3~4년 ~ X-1년) * 대상기간 2~3년, 대상기간 종료 후 1년차 편찬 착수 * 사업기간 9개월	1~10집까지 발간 (1945~2015)
	※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서 제공받은 국방·군사 관련 조약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국방정책 변천사	• **필요시** * 사업기간 2년	1집, 2집 발간 (1945~2003년)
	※ 특정기간의 국방정책, 조직, 제도, 전력증강 등의 변천과정을 종합정리	
국방 사건사	• **필요시** * 사업기간 2년	1집 발간 (1·21, 8·18 등)
	※ 국방 관련 주요사건을 정리	

나.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군사연구 및 편찬업무는 전략기획본부 전투발전부에 편성된 군사연구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표 15〉 합참 군사연구과 연혁[36]

○ 합동군제 합참(4본부 5실 체제) 下「군사연구실」편제('90. 10. 1.)

군사연구실 (16명)
- 군사연구과 : 합참사 / 합참지 발간, 용역연구과제 업무
- 군사자료과 : 군사자료실(합참도서관) 운영

○ 조직축소「실」⇨「과」('95. 4. 12.)
  * 1실 2과 ⇨ 1과(작전참모부 교리처 소속)
○「과」소속전환
  • 작전본부 ⇨ 전략기획본부('09. 4. 1.), 전략기획본부 ⇨ 작전본부('11. 1. 1.)
  • 작전본부 ⇨ 전략기획본부('14. 3. 1.)
○「과」기능 추가('15. 1. 1.)
  * 특수기록관 이관(구 인사운영과 ⇨ 군사연구과)

합참 군사연구과는 1990년에 군사연구실(2개과 16명)로 편성되었는데 1995년 군사연구실이 과로 축소되고 작전본부와 전략기획본부로 편성이 오고가는 혼란을 겪었다. 지난 2015년에는 인사운영과에서 특수기록관이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사연구과의 임무 및 기능은 아래 〈도표 16〉과 같다.

〈도표 16〉 합참 군사연구과 임무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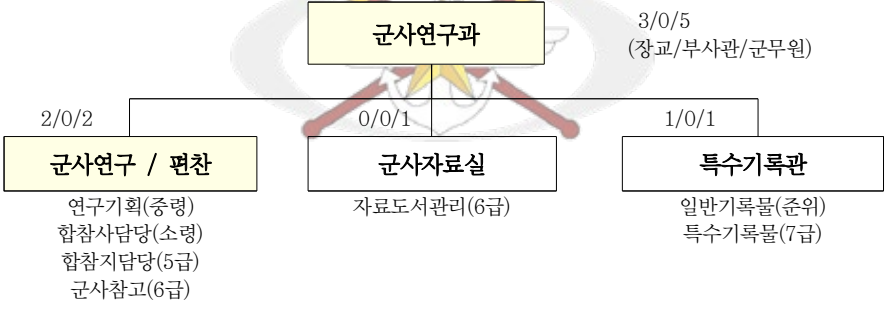
○ 군사연구업무
  • 정책발전연구위원 운용 •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 추진
○ 군사편찬업무
  • 합참사 편찬 • 합참지 발간 • 군사참고 발행
○ 자료관리업무
  • 군사자료실 운영 • 특수기록관 운영

36)「국방역사 편찬 워크숍」자료, 2018.6.12.

군사연구과는 군사연구/편찬업무와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군사연구/편찬업무는 매년 합동참모본부의 부대사인『합참사』편찬과 분기별『합참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비정기 간행물은 합참의 각 부서별 업무와 관련된 외국의 군사자료를 번역하여 지원하는『군사참고』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전역 5년 이내의 예비역 장군을 정책발전연구위원으로 모집·선발하여 합참 주요현안·정책발전 등 연구 및 자문활동을 실시하며, 전역 군인의 군사지식을 활용하는 군사학술용역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군사자료실 / 특수기록관은 자료획득과 도서관리, 일반기록물 및 특수기록물 관리임무를 수행한다.

합참 군사연구과의 편성은 〈도표 17〉과 같다.

〈도표 17〉 합참 군사연구과 편성[37]



합참에서 발간되는 정기역사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부대사인『합참지』로 1년 주기로 발행되며, 2019년 현재 제32집(2018년)까지 발간되었다. 합참사는 합참본부 각 부서, 작전 및 합동부대에서 제출하는 군사보고를 기초로 하여 군사연구과에서 편찬한다. 주요내용은 합참의 주요활동사항(작전, 군사활동, 사업추진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작전 및 합동부대의 작전 및 군사활동을 화보자료로 수록한다.

이 외에도 평화유지를 위한 해외파병 정책결정 배경 및 경과가 포함

37)「국방역사 편찬 워크숍」자료집, 2018.6.12, 2-2쪽

된『해외파병 참전사』와 전·평시를 막론하고 주요 작전활동에 참가한 작전부대가 작전종료 후에는 합동작전의 역사적 교훈 도출을 위하여 상황 전개시 작전경과 및 결과가 포함된『합동작전사』를 적정시기에 편찬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연구과에서 발간되는 연구편찬사업은 아래 〈도표 18〉과 같다.

〈도표 18〉 합참 연구편찬사업 기준[38]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합참사	• **매 1년 주기작성**(X+1년) * 대상기간 1년, 대상기간 종료 후 1년차 편찬	1~32집 발간 (1990~2018)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대, 합동 및 기타부대의 주요업무/활동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 ※ 발간 시 Ⅱ급, 5년 후 Ⅲ급, 10년 후 대외비로 등저 관리	
해외파병 참전사	• **필요시**	
	※ 국위선양 / 국제평화를 위한 해외파병 정책결정 배경 및 경과 포함	
합동 작전사	• **필요시**	
	※ 합동작전의 역사적 교훈 도출을 위하여 작전경과 및 결과 포함	
합참지	• **연 4회**(1, 4, 7, 10월)	1~81호 발간 (1992~2019 가을)
	※ 합참의 활동사항을 군내·외에 홍보, 안보의식 고취 ※ 군 간부의 군사교양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 전문교양지 발간	
군사참고	• **매 1년 주기 작성**	1997~2018
	※ 군사와 관련된 최신 외국 군사자료 중 업무 참고 및 교양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번역 발간	
학술용역 연구사업	• **매 1년 주기 작성**	
	※ 예비역 장교의 군 전문지식을 활용한 합참 정책 및 업무발전 과제 연구	

38) 합참, 합참규정-535-01「군사(軍史)업무규정」발췌, 2014.9.15.

다. 육군본부

육군의 군사연구 및 편찬업무는 육군군사연구소에서 수행한다.

〈도표 19〉 육군군사연구소 주요 연혁[39)]

○ 1949. 12. 1.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 육군편찬위원회 설치
○ 1951. 2. 16. 전사감실 편성(작전전사과, 후방전사과, 행정과)
○ 1951. 8. 17. 개편(편찬과, 자료과, 행정과)
○ 1953. 11. 10. 군사감실로 개칭(편찬과, 자료과, 발간과, 행정과)
○ 1961. 9. 17. 육본 작참부 군사처로 통합(부대역사과, 전사편찬과)
○ 1971. 1. 1. 군사연구실 재창설, 특별참모부 독립
＊ 부대역사과, 전사편찬과, 행정실
○ 2006. 4. 1. 군사연구소로 부대명칭 변경 / 개편
＊ 역사편찬과, 군사관리과, 한국전쟁연구과, 세계전쟁연구과
○ 2016. 4. 1. 육군군사연구소로 부대명칭 변경
＊ 역사편찬과, 한국전쟁연구과, 세계전쟁연구과
○ 2018. 7. 1. 개편(군사연구지원과, 육군역사편찬과, 전쟁사연구과)
* 연구소 임무 및 기능 조정(육군역사 기록, 전쟁사 연구 및 편찬)
(군사업무 참모총장 보좌, 역사 기록 · 편찬, 국내외 전쟁사 연구 · 편찬, 참전자 명예선양 등 군사업무지원)

육군군사연구소는 1951년 2월 16일에 육군 전사감실로 출발하였다.[40)] 현재의 명칭인 '육군군사연구소'는 여러 번의 조직개편 및 개칭 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사용되고 있다.

2018년 육군군사연구소는 임무 및 기능을 재정립하였다. 재정립된 임무 및 기능의 핵심은 "육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쟁사를 연구·편찬하여 육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육군군사연구소의 임무 및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표 20〉과 같다. 2018년 육군군사연구소는 '전·평

39)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7쪽 요약
40) '전사감실'이 창설되기 전, 1949년 12월 1일에 설치된 '육군편찬위원회(1950.6.25. 전사편찬위원회로 개칭)'가 군사업무 기능을 수행하였다.

시 전훈분석단 운용통제'의 임무 및 기능을 교육사에 이양하고, '군사업무에 관한 참모총장 보좌'의 임무를 추가하였다.

〈도표 20〉 육군군사연구소 임무 및 기능[41]

ㅇ 임 무

"육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쟁사를 연구·편찬하여 육군발전에 기여"

ㅇ 기 능

① 육군의 군사(軍史)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 보좌
- 군사업무 발전계획 수립 및 지침하달
- 군사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확인

② 육군의 역사 기록 · 편찬
- 육군의 부대계보 · 부대사 기록 관장
- 육군 역사의 기록 · 편찬
- 전 · 평시 '군사자료수집단' 운영

③ 국내외 전쟁사 연구·편찬
- 전쟁 사료 · 자료 수집 및 관리
- 주요 전사 연구 · 편찬
- 전훈도출 및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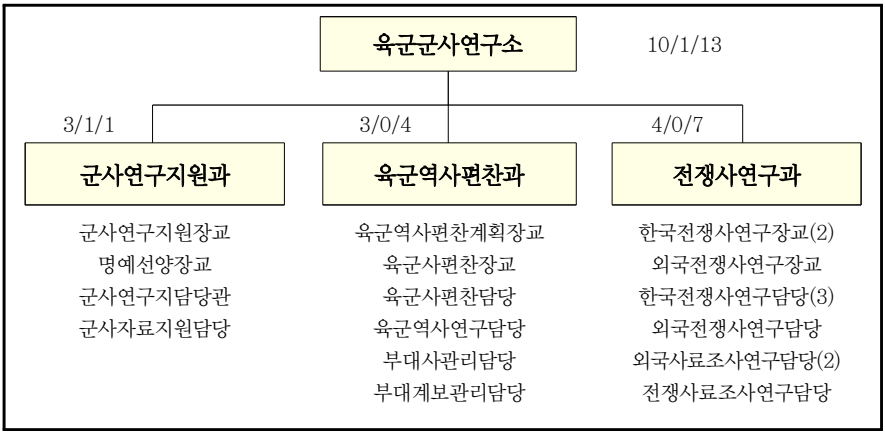
④ 군사(軍史)업무 지원
- 참전자 명예선양(명예의 전당 · 전사자 명부관리 등)
- 군사(軍史)사실 확인 및 자료지원(민원포함)
- 육군의 역사 홍보
- 『軍史硏究』지 발간

그 결과 육군군사연구소의 임무 및 기능은 ① 군사업무 참모총장 보좌, ② 육군의 역사 기록·편찬, ③ 국내외 전쟁사 연구·편찬, ④ 군사업무 지원 등 4가지로 정립되었다.

임무 및 기능이 재정립되면서, 편제도 역사편찬과·한국전쟁연구과·세계전쟁연구과에서 군사연구지원과·육군역사편찬과·전쟁사연구과로 조정되었다. 현재 육군군사연구소의 편제는 〈도표 21〉과 같다.

41)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8쪽

〈도표 21〉 육군군사연구소 편성[42]



※ 2019.12.10.부로 육군군사연구소장 장군(준장)에서 군무원(2급)으로 전환

육군군사연구소의 역사 편찬체계는 '육군의 역사기록'과 '육군의 역사편찬서 발간'으로 구분된다. 역사기록물은 『부대상보』[43], 『부대사』, 『전투상보』 등이며, 역사편찬서는 『육군발전사』, 『병과발전사』, 『육군본부 참모부 변천사』, 『부대 변천사』, 『해외파병 화보집』 등이다.

『부대상보』는 한 부대의 창설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조직의 변천과정을 기록한 역사기록물이다. 영관급이상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월 2회 이상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대사』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 및 부서에서 1년 단위로 편찬한다.[44] 매년 육군의 주요정책과 활동을 기록한 『육군사』도 부대사에 속한다. 『전투상보』는 전·평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요작전에 참가한 영관급 이상의 부대에서 세부 작전활동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주요 작전이나 전투

42) 육군연구소 홈페이지(인트라넷) / 국방조직정원체계(인트라넷)
43) 2019년 예하부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대계보'를 '부대상보'로 개칭
44) 『부대사』는 매년 9월 말까지 전반기 주요 활동내용을 담은 초안을 '부대계보·부대사 기록 관리체계'에 우선 등록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전반기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을 지휘관 승인을 득한 후 「부대계보·부대사 기록 관리체계」에 등록. 육군군사연구소는 6월 말까지 등록된 『부대사』를 평가 및 승인 완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육군 역사편찬서는 중·장기 계획 속에서 발간된다. 『육군발전사』는 육군의 주요활동과 핵심사업 추진 등 육군의 발전경과를 50년, 100년 주기로 편찬된다. 『병과발전사』는 「군인사법」 제5조에 명시된 병과를 대상으로 창설 순서를 고려하여 해당 병과에서 10년, 50년, 100년 주기로 편찬한다. 『육군본부 참모부 변천사』는 육군본부 참모부 중 공보정훈실, 법무실, 의무실, 군종실을 제외한 9개 참모부를 대상으로 매년 1개 참모부씩 10년, 50년, 100년 주기로 편찬한다. 『부대 변천사』는 『해체부대 변천사』와 『육군본부 직할부대 변천사』로 구분된다. 『해체부대 변천사』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체된 장성급 지휘관이 편성된 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매년 3~5개 부대씩 편찬한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변천사』는 주요 기능 및 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순서에 따라 매년 1개 부대씩, 부대별로는 10년 주기로 편찬한다. 『해외파병 화보집』은 국위선양 홍보와 해외파병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파병부대별로 편찬하며, 최초 파병 시(파병준비~전개단계)와 파병 후 복귀 시로 구분하여 2회 편찬한다. 육군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주요 역사서를 살펴보면 〈도표 22〉와 같다.

〈도표 22〉 육군군사연구소 연구편찬사업 기준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육군사	• **매 1년 주기 작성**(X+1년)	1~62집 발간 (1948~2018)
	※ 육군의 주요활동과 핵심사업 추진경과를 역사자료로 존안하고, 군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 ※ 제1집('45~'54년) 1955년 발간, 제2집('55~'58년) 1960년 발간, 1961년 이후 제3집부터 매년 발간 ※ 발간 시 Ⅲ급, 10년 후 대외비로 등저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육군발전사		• 매 50, 100년 주기 작성	육군·참모부·기능별 발전사
		※ 1년 단위로 작성하는 육군사를 기초로 50년, 100년 주기로 편찬하는 역사서 : 육군발전사(5종)	
병과발전사		• 매 10, 50, 100년 주기	해당 병과별 작성
		※「군인사법」 제5조에 명시된 병과를 대상으로 매년 2~3개 병과씩 10년, 50년, 100년 주기로 편찬 ※1991~05년: 병과 50년 발전사(25개 병과 발간) ※'05년 이후: 병과발전 10년사(19개 병과)	
부대변천사	육본 직할부대 변천사	• 주요 기능 및 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매년 1개 부대씩 작성, 부대별로는 10년 주기로 편찬	
		※ 육본 직할부대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개 부대씩 한시적으로 편찬	
	해체부대 변천사	• 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매년 3~5개 부대씩 작성	
		※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거 해체된 여단급 이상(편제상 장성급 지휘관) 부대를 대상으로 매년 3~5개 부대씩 편찬	
육본 참모부 변천사		• 매 10, 50, 100년 주기	
		※ 병과발전사를 발간하는 공보정훈실, 법무실, 군종실 등을 제외한 9개 참모부를 대상으로 매년 1개 참모부씩 10년, 50년, 100년 주기로 편찬	
해외파병 화보집		• 파병부대별로 편찬하며, 최초 파병 시(파병준비~전개단계)와 파병 후 복귀 시로 구분하여 2회 편찬	
		※ 해외파병부대는 화보집 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육군군사연구소에 보고	

라. 해군본부

해군의 군사연구 및 편찬업무는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표 23〉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주요 연혁[45]

○ 1951. 4. 1. : 해본 작전국 전사과
○ 1951. 9.10. : 전사편찬실
○ 1981. 7.15. : 작전참모부 군사편찬실
○ 1983. 1. 1. : 작전참모부 군사연구실
○ 2006. 1. 1.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창설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은 6·25전쟁 시기인 1951년 4월 1일에 해군본부 작전국의 전사과로 시작되었다. 동년 9월에는 해군본부 직속 전사편찬실로 개편되었다가 1981년 7월 15일부로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예하 군사편찬실로 개편, 1983년 1월 1일부로 군사연구실로 개편되었다. 2006년 1월 1일에는 해군기록물 보존소의 기록물관리업무를 포함하여 해군본부 직할부대인 해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 창설되었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임무/기능은 아래 〈도표 24〉와 같다.

〈도표 24〉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임무 및 기능

○ 軍史업무 계획 수립 및 통제
○ 해군 歷史·戰史 편찬 및 전적기념물에 관한 업무
○ 해군박물관, 기념관(물)에 관한 업무
○ 기록물 수집 및 평가/분류, 보존/활용
○ 전역자 병적관리 및 문서 인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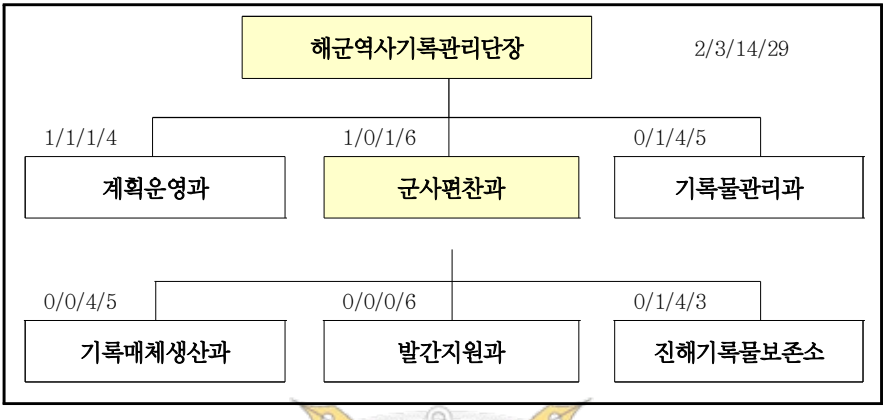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경우에는 군사(軍史)업무 외에 기록물수집 및 관리에 대한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해군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제도개선, 각 부대별 기록과 운영 통제, 보전기록물의 정보화체계 구축 및 관리, 전역자 병적관리 및 인쇄지원업무는 물론 각 부대별 기념관,

45)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15쪽

역사관, 박물관에 대한 건립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임무도 수행한다.

현재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편성은 아래 〈도표 25〉와 같다.

〈도표 25〉 해군역사기록관리단 편성[46]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편성을 보면 실제적인 군사편찬인력은 병사 1명(어학병)을 포함하여 8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교(중위)는 자료수집/번역담당 임무를 수행하며, 군무원 6명은 군사편찬과장, 해군사연구담당, 해군사편찬담당, 부속역사서편찬담당, 해군역사검증담당, 부대계보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연구편찬체계는 기본역사서와 부속역사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역사서는 『해군사』, 『부대사』, 『정기역사보고서』, 『작전경과보고서』, 『부대계보』, 『항박일지』, 『전투상보서』가 있다. 해군의 역사서인 『해군사』는 2년 주기로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발간되고 있으며, 예하부대의 정기역사서는 독립전단급 이상 부대에서 작성하는 각급 제대별 『부대사』와 해군본부 참모부/실에서 작성하는 『정기역사보고서』로 1년 단위로 작성된다. 작전사 및 각 함대사에서 작성하는 『작전경과보고서』

46)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15쪽 / 해군본부 홈페이지

도 1년 단위로 발간되는데, 이러한 정기역사서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작성하여 참모총장(해군역사기록관리단장)에게 보고한다. 『부대계보』는 각 부대(서)의 일지로서 제원, 주요직위자 현황, 주요활동 등을 수록하고 『부대사』, 『정기역사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항박일지』는 함정의 모든 행동을 시간별로 기록한 일지로 함정의 작전, 훈련, 기동 등 활동 내용을 수록한다. 또한 전·평시를 불문하고 상황발생 시에는 작전·전투에 참가한 각급 부대에서 상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투상보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역사서는『해군일화』, 『해군편제사』, 『해군발전사』, 『병과사』, 『지휘기록집』, 『주제사』 등이 있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발간되는 연구편찬사업분야는 아래 〈도표 26〉과 같다.

〈도표 26〉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연구편찬사업 기준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해군사	• 매 2년 주기(X-2년, 3년)	1~25집 발간 (1954~2018)
	※ 해군의 정책, 제도, 작전, 교육훈련, 군수/지휘통신 등 주요 수행업무를 종합 정리 ※ Ⅲ급으로 발간, 6년 후 대외비로 등급 저하	
해군 발전사 / 병과사	• 매 10년 주기(X-2년, 3년)	해군역사단, 병과별 편찬
	※해군 / 각 병과에 대한 역사를 화보 또는 책자 성격으로 편찬	
작전경과 보고서	• 매 1년 주기(X-1년)	
	※ 해본, 작전사, 각 함대(지통실)로부터 수집한 함정 /항공기 등 일일작전, 경비, 훈련, 작전배치 등 일일/특별작전현황 내용 종합 작성 ※ Ⅱ비밀(DVD/2매)2부 생산 영구보존	
편제사	• 매 5년 주기(X-1년~X-5년)	
	※ 해군부대 및 국직부대(해군정원 편성된 부대)의 조직/편제에 대하여 부대별·연도별 변천과정 수록 ※ Ⅲ급비밀로 발간, 10년 후 대외비로 재분류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해군 일화집	• 매 2년 주기	1~9집 발간 (1964~2019)
	※ 해군에서 체험한 내용 중 해군역사(정사)에 수록되지 않은 사실로 교훈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화를 모집하여 발간	
부대계보	• 수시	
	※ 각 부대(서)의 일지로 부대사, 정기역사보고서 기초자료 제공	
주제사	• 매년 주기	
	※ 해군역사 중 한정된 시기 또는 전체적 시기, 특정분야 등에 집중	

마. 공군본부

공군의 군사연구 및 편찬업무는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표 27〉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주요 연혁[47]

○ 1950. 10. 17. : 공군본부 고급부관실 정리과
○ 1953. 10. 1. : 정훈감실 전사편찬실
○ 1971. 1. 1. : 작전참모부 군사과
○ 1979. 9. 11. : 정훈감실 군사자료과
○ 1981. 2. 21. : 작전참모부 군사연구실
○ 2006. 1. 1.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창설

공군의 역사업무는 6·25전쟁 시기인 1950년 10월 17일에 공군본부 고급부관실의 정리과로 시작되었다. 1953년 10월에는 공군본부 정훈감실 전사편찬실로 개편되었다가 1981년 공군본부 작전참모부 예하 군사연구실로 개편된다. 2006년 1월 1일에는 공군중앙기록보존소와 군사연구실을 통합하여 공군본부 직할부대인 공군 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 창설되었다. 2007년 6월 1일부로 현재 명칭인 공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 부대명칭이 변경되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임무/기능은 아래 〈도표 28〉과 같다.

〈도표 28〉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임무 및 기능

○ 공군의 역사서 편찬 및 전사(戰史) 연구
○ 공군역사 교육·학술·홍보활동 및 역사기념물 건립
○ 기록물 관리/보존에 관한 제도발전과 정책수립
○ 기록물 보존매체 제작 및 인쇄 지원
○ 대외 박물관/기념관과의 교류 · 협력 · 지원
○ 교육훈련 및 기록보존용 시청각물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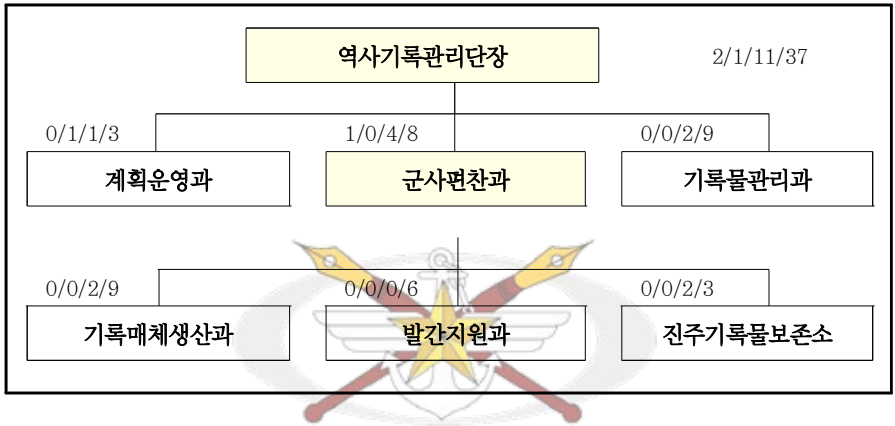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경우에도 군사(軍史)업무 외에 기록물관리 및

47)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19쪽

보존에 대한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공군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보존매체 제작 및 전산화, 공군 및 공군본부지역 인쇄지원 업무는 물론 부대역사관 운용과 공군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도 수행한다.

현재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편성은 아래 〈도표 29〉와 같다.

〈도표 29〉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편성[48]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편성을 보면 실제적인 군사편찬인력은 병사 4명(행정지원, 자료편집지원 3명)을 포함하여 13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역 장교(2명)는 항공전사편찬/번역(대위), 국외자료수집/통·번역(중위) 임무를 수행하며, 군무원 7명은 과장, 공군사편찬담당, 6·25전사연구담당, 주제사편찬담당, 부대사편찬담당, 군사자료수집담당, 군사일지/계보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연구편찬체계는 정기역사서와 부정기역사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역사서는 6종으로 『공군사』, 『공군본부사』, 『군사보고서』, 『병과사』, 『부대사』, 『부대연사』가 있다. 공본 및 예하부대의 업무수행 내용, 변천 및 발전사항 등을 수록한 공군의 역사서인 『공군사』는 5년 주기로, 공

48)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19쪽

군본부 각 부실에서 수행한 군사정책, 제도발전, 작전 및 교육훈련 사항을 수록한 정기역사서인 『공군본부사』, 공본 부·실의 연간 업무수행 내용을 수록한 『군사보고서』, 그리고 예하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에서 작성되는 『부대연사』는 1년 단위로 발간된다. 정기역사서 중에 『부대사』와 『병과사』는 10년 주기로 편찬되고 있다. 부정기역사서는 『편제변천사』, 『역사화보집』, 『주제사』, 『공군발전사』, 『전기』 등이 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발간되는 연구편찬사업분야는 아래 〈도표 30〉과 같다.

〈도표 30〉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연구편찬사업 기준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공군사	• 매 5년 주기	1~14집 발간 (1949~2014)
	※ 공군본부 군사보고서 및 공군본부사, 각급 부대사, 부대연사, 정책보고자료 등 주요업무 수행 자료를 중심으로 발간 ※ Ⅱ급 비밀로 발간	
공군본부사	• 매년 주기	
	※ 공군본부 각 부실에서 수행한 군사정책, 제도발전, 작전 및 교육훈련 사항을 수록	
군사보고서	• 매 1년 주기	
	※ 공본 부실의 연간 업무수행 내용을 수록	
부대연사	• 매 1년 주기	
	※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의 연간 주요 활동사항을 수록	
부대사	• 매 10년 주기	
	※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의 주요 업무수행 내용, 변천 및 발전사항 등을 수록	
병과사	• 매 10년 주기	
	※ 공군 각 병과의 발전상을 기록한 역사서로 병과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발간	
연구 용역사업 (주제사, 전기, 평전)	• 매년 주기	
	※ 주제사 편찬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연구용역 및 자체 편찬사업으로 추진 발간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미 공군연감	• 매년 주기	
	※ 미 공군 Air force 매거진을 중심으로 전력, 조직, 무기체계 변경내용 등을 확인하여 번역 발간	
편제변천사	• 부정기	
	※ 공본 및 예하부대의 창설, 해편, 개편, 기구 변천 등의 내용을 수록	
공군역사 화보집	• 부정기	
	※ 해당 기간 중 공군발전 및 주요 활동사항이 나타난 사진화보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	

바.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의 군사연구 및 편찬업무는 해병대군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표 31〉 해병대 군사연구소 주요 연혁[49)]

○ 1952. 2. 29. 정훈감실의 전사편찬과를 폐합 ＊ 행정기획과, 교육과, 편제과, 전사과로 개편 ○ 1972. 9. 10. 편제 및 군사처로 개편 ○ 1973. 10. 10. 해군본부 소관참모부로 인계하고 해체 ○ 1991. 1. 30. 작전참모처 군사연구과 신편 ＊ 편사과를 편제과와 군사연구과로 분리 ○ 2006. 12. 1. 작전계획처 신설, 군사연구과 편성 ○ 2010. 1. 1. 군사연구과 ⇨ 군사연구소(직할부대)로 분리

해병대 군사연구소는 6·25전쟁 시기인 1952년에 정훈감실의 전사편찬과로 시작되었다. 1973년에 해군과의 통합으로 해체되었다가 1991년 1월 30일에 작전참모처 군사연구과로 신편되었다.

2006년에 작전계획처가 신설되면서 예하 군사연구과로 편성이 조정된 이후, 2010년 1월 1일부로 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인 군사연구소로 분리되었다.

해병대군사연구소의 임무/기능은 아래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해병대군사연구소 임무 및 기능

○ 해병대 군사(軍史) 업무 총괄 ○ 해병대 역사기록, 역사자료관리 업무 • 해병대 정기 역사보고, 부대 역사업무, 역사관련 간행물 발행 • 참전용사 증언 녹취, 정리 및 보존 ○ 해병대 역사관 / 전적물 관리 업무 ○ 해병대 역사(부대사/편제사) / 전사(상륙전사/전투사)연구 업무

49)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23쪽 요약

해병대 군사연구소는 해병대의 군사(軍史) 업무를 총괄한다. 정기 역사보고, 부대 역사업무, 역사관련 간행물 발행 등 해병대 역사기록 및 역사자료관리 업무와 역사관 및 전적물 관리 업무, 역사(부대사/편제사) 및 전사(상륙전사/전투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해병대군사연구소의 편성은 아래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해병대군사연구소 편성[50]

해병대군사연구소의 편성을 보면 7명으로 실제적인 군사편찬인력은 3명으로 전사연구담당 2명과 군사연구담당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병대군사연구소의 연구편찬체계는 부대사와 정기역사보고서, 부대계보로 구분할 수 있다. 해병대사는 사령부에서 실시한 주요 업무수행 자료를 2년 주기로 편찬하며, 부대사는 사·여단급 부대에서 매년 보고하는 정기역사로 전년도의 주요 부대활동을 매년 3월 말까지 작성하여 해병대사령관(군사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정기역사보고는 해병대사령부 각 부서에서 주요 활동사항(군에 교훈을 주는 사건/사고 포함)을 망라하여 매년 작성한다. 해병대 발전사와 화보집, 편제사는 매 20년 주기로 작성하며, 부대발전사와 전문분야 발전사(병과사)는 10년, 50년, 100년 단위로 발간한다. 해병대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연구편찬사업분야는

50)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24쪽

아래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해병대군사연구소 연구편찬사업 기준[51]

구 분	발간 순기(X년 : 착수 연도)	비 고
해병대사 / 부대사	• 해병대사 : 2년 주기 • 부 대 사 : 1년 주기	1994~2016년
	※ 사령부 / 사·여단급 부대에서 실시한 주요 업무수행 자료 수록	
정기역사 보고서	• 매년 주기	
	※ 사령부(처·실)에서 실시한 주요 업무수행 자료 수록	
해병대 발전사 / 화보집	• 매 20년 주기 (X-2년, 3년)	편찬위원회 구성
	※ 사령부 / 각 병과에 대한 역사를 화보 또는 책자 성격으로 편찬	
편제사	• 매 20년 주기	
	※ 해병대의 조직 / 편제에 대하여 부대별·연도별 변천과정 수록	
부대발전사 / 병과사	• 매 10년, 50년, 100년 주기	
	※ 해병대사령부 및 각 부대의 역사를 화보 또는 책자로 편찬 (기타부대 : 필요시 편찬)	
부대계보	• 매월/분기별(수시)	
	※ 각 부대(서) 일지로서 부대사, 정기역사보고서 기초자료	
전투상보서	• 상황발생시	253권 보유 (베트남전 171권)
	※ 주요 작전 발생시 교훈, 발전과제 등을 포함한 작전경과 보고서로 작전 종료 후 작성	

51)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6.12., 2-25쪽 / 해병대사령부, 해병대규정 제180호 「군사업무규정」 발췌, 2016.1.8.

2. 국방역사 편찬 실태 및 문제점

앞 절에서는 국방역사 편찬 기구의 임무 및 편성과 편찬체계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각 군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조직편성과 인적자원의 구성, 연구편찬체계 분야에서 식별된 각 군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가. 조직편성 및 인적자원 구성 측면

현재 국방부, 육군, 해병대의 연구기관 편성은 기록물관리업무를 제외한 순수한 역사편찬연구기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합참과 해·공군은 경우에는 역사편찬과 기록물관리를 통합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각 연구기관별 연구편찬인력 편성은 〈도표 35〉와 같다.

〈도표 35〉 연구기관별 연구편찬인력 편성 비교

구 분	국방부 군편소	합참 군연과	육군 연구소	해군 기록단	공군 기록단	해병대 연구소
편성인원	35	8	27	49	51	7
전문인력[52]	22	4	17	5	7	3

도표와 같이 합참 및 해병대의 경우에는 편성인원이 소규모이고 역사편찬업무 수행 인력은 3~4명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편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군과 공군의 경우 역사기록관리단에서 가장 약한 분야가 '국방역사 연구기능'이다. 해·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의 경우에도 역사편찬업무보다는 기록관리 및 매체생산, 발간지원업무에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어 역사편찬업무에는 인력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공군 모두 군

52) 편성인원 중 직무상 역사편찬 및 연구 인력

사편찬과가 편성되어 있으나 군사업무에 관련된 인원은 5~7명으로 편제인원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 인력의 경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대부분이 전문경력관(또는 별정직)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합참 및 각 군의 경우에는 주로 현역군인이나 일반 행정직 군무원이 편성되어 있고 2~3년 주기로 많은 인원의 보직이동으로 전문성 유지가 힘든 실정이다.

특히 정책부서나 야전에서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군사업무담당은 역사 전공자는 거의 없으며, 군사(軍史)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보다 기본업무수행에 군사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방부 및 각 군의 군사업무담당 편성기준은 〈도표 36〉과 같다.

〈도표 36〉 국방부 및 각 군의 군사업무담당 편성기준[53]

구 분	편 성 기 준
국방부 본부	○국방부 국·실에 군사업무담당관 지정운용 * 각 과 단위로 잠정 운용 중
국직부대	○국직부대(직할기관)별 군사업무담당 지정
합 참	○합참본부 부·실별 군사담당관 지정운용 ○작전 및 합동부대장은 군사담당관 지정운용
육 군	○육군본부 부·실·단별 군사업무담당관 지정운용 ○각 부대(단위부대급 이상) 군사업무담당관 지정운용
해 군	○해군본부 각 부서장에게 군사업무 책임 지정 ○예하 각 부대(서)장에게 군사업무 책임 지정 ○부대사 작성책임(편제표에 군사업무담당 편성) – 해군본부 각 참모부(실·단), 독립전대(연대)급 이상
공 군	○공군본부 각 참모부서 군사업무담당 정·부 임명 운용 ○독립전대급 이상 군사업무담당 정·부 임명 운용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각 부서장에게 군사업무 책임 지정 ○예하 각 부대)장에게 군사업무 책임 지정

53) 군사업무훈령 / 각 군 군사업무규정에서 발췌

도표에서와 같이 해·공군의 경우에는 야전부대에 군사업무담당이 편제표상 편성(단독 또는 겸무)되어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지만, 국방부 및 육군의 경우에는 편제표상에는 군사업무담당이 미편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으로 직무가 부여되어 자신의 고유임무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례로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군사업무담당 소집교육 및 워크숍의 참석률을 보면 『부대사』를 직접 작성하는 국직부대는 관심이 있으나, 『국방부사』의 1차 자료만 제공하는 국방부 본부의 경우에는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다.

나. 연구편찬 업무체계 측면

2년 주기의 국방정기역사서의 연구편찬 사업 추진일정은 대체로 유사하다.

〈도표 37〉 『국방부사』 발간 일정표

구 분	사업 전년도			사업 연도				비 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1 4 / 5 8 / 9 12	1 4 / 5 8 / 9 12		1 2 / 3 4 / 5 6	7 8 / 9 10 / 11 12	1 2 / 3 4 / 5 6	7 8 / 9 10 / 11 12	
2015년 자료접수	—							국방부본부 각 군 연구소 /역사기록단, 국직부대 등
2016년 자료접수		—						
최종 자료접수			—					
자료분석/ 추가자료 수집				—				
편찬계획보고		–		–				연구소장
원고 집필				—	—	—		분야별 집필
중간 검토보고					–	–		2회
원고심의 초 심						—		부 장
원고심의 감 수							—	국방부본부
원고심의 평 가							–	외부전문가 3명
원고심의 보안성검토							–	부 장
원고심의 최종심의							–	연구소장
인쇄계약							–	국군인쇄창
원고편집·교정							–	국군인쇄창
인쇄 전 최종보고							–	연구소장
발간·배포							—	정보자료실

앞서 제시된 〈도표 37〉은 편찬기간이 2년인 『국방부사』의 발간 일정표로, 표준적인 발간 일정의 예시이다.

현재 『국방부사』의 연구편찬은 대상기간 종료 후 2년차에 편찬을 시작하여 2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자료수집은 국방부훈령 제2103호 「군사(軍史)업무훈령」에 의해 연도별 업무추진실적을 국방부, 합참, 각 군으로부터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각 국·실 및 부대에서 접수된 2년간의 1차 자료에 국방부에서 발간된 국방백서와 합참사, 각 군에서 발간된 정기역사서 그리고 정부간행물과 주요보도자료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편찬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소장에게 연구편찬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편찬 작업에 들어간다.

편찬 작업은 공간사의 특성상 개인 집필이 아닌 공동 집필로 진행하여 집필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고, 초심과 감수·평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과정을 거쳐 진정한 국방부의 공간사로 탄생된다.

인쇄는 비밀작업으로 국군인쇄창의 비밀작업실에서 최종편집 및 교정이 이루어지고, 편집 및 교정이 완료되면 연구소장에게 최종보고를 실시한 후 인쇄 작업을 진행하여 발간 및 배포가 이루어진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부사』 외에도 10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사』, 5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편년사』, 2~3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조약집』과 부정기역사서인 『국방정책변천사』, 『국방사건사』 등을 편찬하고 있다.

그러나 발간순기가 미준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발간물의 내용이 국내여론이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자체 심의에서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발적인 상부(정부나 국방부)의 지시과제가 부여되어 연구 인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국방

편년사』의 경우에는 1971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되어 있는데,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미발간되어 있으며, 2021년 사업에 비로소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편찬 중인『국방부사』제12집의 경우에도 최초에는 2019년 6월 말 발간을 목표로 2017년 7월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담당연구원이 국방부 지시과제인 민군현안 TF와 KIDA 공동연구 참여로 인해 편찬이 1년간 지연 발간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사업이 순연되면 다음 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계획된 사업 순기를 맞추는데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연구편찬 업무순기 미준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국방역사와 국방정책연구가 동시에 가능한 인력운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방정기역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부'의 인력감축과 연계된다. 2016년까지는 '국방부사담당장교'가 편성되어 정기역사자료 수집과 비밀관리, 편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나 2017년부터 편제가 삭감됨에 따라 기존 연구원이 순환하여『국방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국방부사』편찬업무가 연구원별 순환업무로 지속될 경우 정기역사 자료수집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비밀을 포함한 자료의 관리, 정기역사서 편찬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된다.

각 군의 경우에는 〈도표 38〉과 같이 각 군별 군사업무규정이 정하는 업무체계의 발간 순기에 따라 편찬된다.

〈도표 38〉 각 군 역사서 발간순기 비교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각 군사	육군사	해군사	공군사	해병대사
	1년	2년	5년	2년
각 군 발전사	50, 100년	10년	부정기역사서	2년
병과(발전)사	10, 50, 100년	10년	10년	10, 50, 100년
(편제)변천사	각 참모부 10, 50, 100년	5년	10년	20년

가장 기본적인 각 군사(합참사, 육군사, 해군사, 공군사, 해병대사)의 경우에는 1~5년 주기로 발간된다. 합참과 육군은 1년 주기, 해군과 해병대는 2년 주기, 공군의 경우는 5년 주기로 각 군사(軍史)를 편찬하고 있으며, 해·공군, 해병대는 1년 주기로 각 군 본부의 부대사를 별도 편찬하고 있다. 각 군 및 병과의 『발전사』, 『편제사』, 『변천사』 등은 각 군의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공군의 경우 『발전사』를 정기역사서가 아닌 "부정기역사서"[54]로 구분하고 있다.

편찬체계 중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국방부와 국직부대와는 달리 각 군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입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육군은 자체 인트라넷 시스템상에 "부대상보·부대사 기록 관리체계"[55]를 운용하고 있다. 이 체계를 통해 육군군사연구소는 예하부대가 작성한 부대상보·부대사 업무를 확인 감독, 등록 및 승인하고 "부대상보·부대사 기록관리체계"의 개선 소요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조치하여 부대상보·부대사의 관리를 위한 여건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은 해·공군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부대계보"[56]를 "부대계보관리체계"를 통해 입력한다. 입력하는 부대는 해군의 경우 해군본부 참모부·실·단의 처 단위 및 전탐감시대 등 독립부대에서 입력하며, 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 참

54) 부정기역사서(공군규정-군사업무) : 각급 부대(서)에서 역사적 사실을 수록하여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모든 역사서를 말한다.

55)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육군 예하 각급 부대에서 작성한 부대상보와 부대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육군 역사 기록 및 관리' 프로그램이다. "부대상보(部隊常報)"란 한 부대가 창설 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조직의 변천과정을 말하며, 편제상 영관급 이상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위를 기준으로 기록한다. "부대사(部隊史)"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독립 여단급 이상 부대나 부서의 부대상보를 1년 단위로 편찬한 역사서를 말한다.

56) "부대계보(部隊系譜)"란 창설 이래 각급 부대(서)의 변천 및 발전사항, 역대 지휘관·참모 현황, 상훈수상 현황, 부대상징 및 장비변동 등의 부대역사를 연·월·일 순으로 기록한 약사를 말한다.

모처·실 및 대대급 이상 부대 및 독립부대에서 입력한다.

공군은 “부대계보”를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 및 공군본부의 각 부·실에서 작성하는데 “공군 계보/일지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입력관리하고 입력한 내용은 해당연도의 『부대사』에 모두 수록한다.

다. 자료수집 및 관리 측면

연구편찬 사업추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1차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관리이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법[57]과 관계가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정부 내 모든 기관의 문서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국방부나 각 군, 예하부대도 예외는 아니며 이는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문서뿐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까지도 보존대상에 포함되며 국정의 입안단계부터 최종결정까지 전 과정을 사후에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자료수집도 이러한 공공기록물관리와 맥을 함께 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위 법률의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 법률의 시행령[58]에서는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5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563호, 2019.2.26., 일부개정]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13호, 2017.3.21., 일부개정]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국방정기역사 작성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원본문서(책자)와 사본(CD, 문서파일)을 동시에 생산 및 보존하고 육군의 경우에는 기록관리시스템(「부대상보·부대사 기록 관리체계」)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의 1차 자료 수집은 국방부훈령인 「군사(軍史)업무훈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군사(軍史)업무훈령」 제12조에는 “국방부본부 국·실장, 직할기관장은 군사업무담당관을 지정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요활동사항을 포함한 군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훈령에 명시된 작성내용은 아래 〈도표 39〉와 같다.

〈도표 39〉 국방 정기역사 포함내용[59]

○ 임 무
○ 조 직(과장급 이상 직책, 계급, 성명, 보직기간 포함)
○ 업무 추진내용
  • 주요 회의록
  • 국방에 관한 주요 활동 내용
    – 제목 : 사업별 또는 주제별
    – 계획 : 사업계획 개요
    – 실적 : 사업결과와 기대효과
    – 배경 : 목적 또는 필요성
    – 경과 : 사업 수행과정
    – 각종 문서, 통계자료 및 사진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점에 “Gold in Gold out”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싶다. 금을 넣으면 금이 나온다는 말로 좋은 자료가 수집되어야 양질의 결과물, 즉

59) 관련 근거: 국방부훈령 제2103호(2017.12.26.) 「군사업무훈령」 제12조

온전한 역사서가 편찬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방부, 합참, 각 군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출 시기를 미준수하거나, 작성내용이 부실하여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내용도 식별되고 있다. 물론 각 부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훈령상의 작성기준과 정기역사에 포함되는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어서 부대역사로의 가치가 저하되거나, 포함된 사진의 해상도가 나빠서 정확한 사진의 내용식별이 제한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국방정기역사 작성시기 준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4개년 동안 국방정기역사를 제출한 현황을 살펴보자.

〈도표 40〉 최근 4개년(2014~2018년) 1차 자료수집 결과[60]

구 분	안보 정세	국방 정책	정 보	군사 대비	지휘통 제통신	동 원	군 수	정신 교육	국방 외교	군비 통제	국방 시설
2015년	○	○	○	○	○	○	○	○	○	×	×
2016년	○	○	○	○	○	○	○	△	○	×	×
2017년	○	×	○	△	○	○	○	○	×	×	×
2018년	○	×	○	×	×	×	○	○	×	×	×

구 분	군사력 건설	국방 개혁	국방 예산	국방 조직	인 사	정보화	교육 훈련	감 사	병 무	보건 복지	국방 홍보
2015년	○	○	○	○	○	○	○	○	×	○	○
2016년	○	○	○	○	○	○	○	○	×	○	○
2017년	○	○	×	×	○	○	×	×	○	○	×
2018년	○	○	×	×	○	×	×	×	○	×	×

60) 2015년 / 2016년은 2017년 3월 기준, 2017년 / 2018년은 2019년 11월 기준, 자료수집 결과

〈도표 40〉의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부서가 연도별로 3개 분야에서 14개 분야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도표는『국방부사』편찬계획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훈령상 보고일인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미제출 부서는 더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국방정기역사 작성 수준도 각 부서별로 천차만별이다. 실무자의 책임감, 부서장의 확인 및 감독이 중요한데, 실태를 분석해 보면 전년도 작성내용이나 사진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포함된 도표나 사진의 관련근거가 없거나 약어에 대한 각 주도 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 현재 국방부 각 국·실에서 제공되는 1차 자료에도 공정성과 객관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의 자료는 1년간 생산된 원자료(정책보고서, 결재문서, 회의록 등)를 정리하여 1차 자료로 생산된 것이다. 결국 1차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가공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과실 기록측면에서 공적인 내용은 부각시키는 반면 과실부분은 누락시키거나 언론에 노출된 정도까지만 기록하는 일반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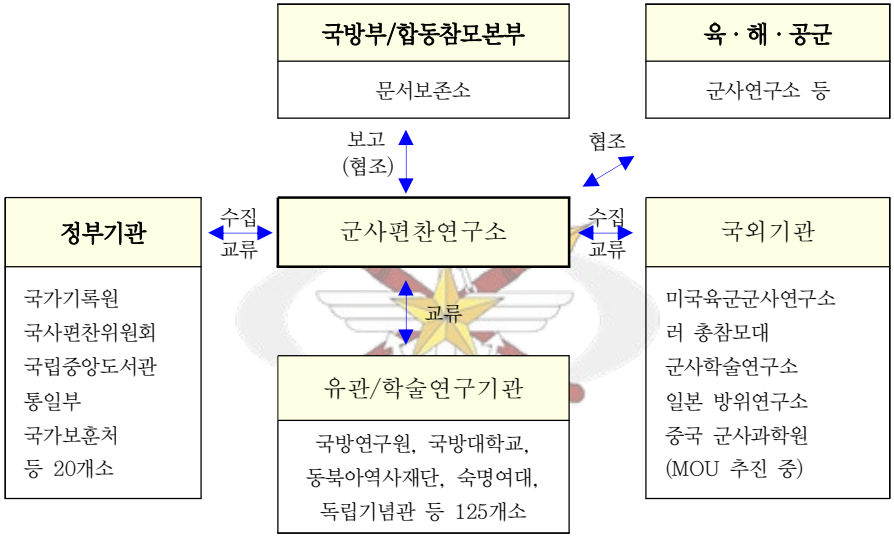
또한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부의 지침부터 개념보고, 계획보고, 정책회의 등 제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그러한 보고나 회의 시 생산되는 문서는 정책의 개념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자 역사자료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 1차 자료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 자료는 역사서를 집필하는 연구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 관리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예산의 지원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군사편찬연구소의 경우 통합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2015~2016년간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DB구

축 작업을 진행한 이후 2017~2019년까지 예산이 미반영되어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다행히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자료관리 시스템과 자료 서비스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군사편찬연구소의 유관기관 구축 및 자료수집체계도는 〈도표 41〉과 같다.

〈도표 41〉 유관기관 구축 및 자료수집체계도[61]



그러나 〈도표〉와 같이 자료수집체계도는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유관기관별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공유체계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의 목록을 확인하고, 비공개 문서의 경우 생산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보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확인하는 실정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국방연구 분야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한,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자

6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차관업무보고」, 2019.6.12.

료공유체계가 필요하다.

자료 관리의 또 하나의 제한사항은 주요 역사서가 비밀로 발간되어 관리가 어렵고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편찬되는 『국방부사』의 경우 Ⅱ급으로 발간되었다가 5년 후 Ⅲ급, 10년 후 대외비로 비밀등급이 조정되어 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대외비 관리지침의 변경과 비밀경량화 지침에 의해 예하부대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비밀 예고문 변경을 통해 직권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 역사자료의 존안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③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19조 4항 및 5항[62]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방정기역사서의 비밀 예고문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62) ④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Ⅳ. 정기 국방역사 편찬 발전방안

Ⅳ. 정기 국방역사 편찬 발전방안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문역사가가 아닌 많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좋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또한 좋은 내용의 역사서가 편찬되더라 하더라도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그 책의 가치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무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임무수행이 가능한 편성 / 인사관리제도 보완

먼저 온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장에서 분석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5가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군사편찬연구소에 '정기국방역사팀' 편성이다.

연구편찬 업무순기 미준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표 42〉와 같이 정기국방역사와 국방정책연구가 동시에 가능한 인력운용이 되어야 한다.

〈도표 42〉 정기국방역사 / 국방정책연구팀 편성 방안(예시)

구 분	정기국방역사팀	국방정책연구팀
편 성	책임연구원 등 2~3명	부장 등 3~4명
과 제	국방부사, 편년사, 조약집 편찬	국방정책연구과제, 국방구술사, 국방사 편찬 등

〈도표〉의 정기국방역사팀 과제인 '국방부사'와 '국방편년사'는 기초 자료 면에서 매우 연관성이 크므로 2~3명이 팀을 형성하여 평소부터 자

료정리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 국방역사 팀장(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팀 구성원들이 장기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국방일보 주요 기사 / 국방부 주요 활동 확인 등 일일, 주간, 월간단위의 전문적인 자료 수집으로 국방부 주요 활동 누락 방지와 수년 후 시행될 편찬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국방편년사』와 『국방조약집』은 용역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전문용역관' 제도를 도입하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각 군 출신 연구원 편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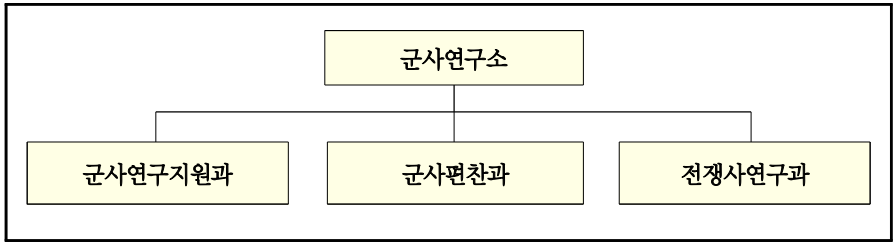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편찬하는 역사서는 육·해·공군 내용이 망라되어 수록되고 있어 각 군 출신의 연구원의 협력된 연구가 필요하다. 1차 자료가 수집되어도 군의 특성이나 무기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편찬 내용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현재 군사편찬연구소의 연구원 인적구성을 보면 육군, 공군, 해병대 출신 연구원은 있으나 해군 출신의 연구원은 미보직된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소 편제에 각 군별 출신 연구원의 정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채용되는 연구원은 전문경력관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문경력관은 연구원 채용기준에 현재의 연구 인력과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선발이 가능하다. 필요한 해당 직위의 편제표에 소요 군종(軍種)을 명시하면 그 근거로 3개 군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인력의 유지가 가능하다.

셋째, 해군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의 편성 보강이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역사기록관리단에서 가장 편성이 취약한 분야가 각 군 역사(전투사) 연구 기능이다. 해·공군 모두 군사편찬과가 편성되어 있으나 군사업무에 관련된 인원은 5~7명으로 편제인원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군사사나 전쟁사를 연구하는 인력편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공군 역사기록관리단에는 정기역사편찬과 전쟁사

연구가 동시에 가능한 조직 편성을 통해 군사사와 전쟁사의 학문적 연구는 물론, 보다 우수한 연구 산물의 발간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의 보완이 필요하다.

〈도표 43〉 해군, 공군 조직편성 보강 방안(예시)[63]



넷째, '군사업무담당'의 직책명칭 부여이다.

국방부 본부/국직부대, 그리고 예하부대에 임무수행 중인 '군사업무담당'은 대부분이 겸무보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업무담당자의 직책명칭에 '군사업무담당'을 포함시켜 자신의 임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해군과 공군을 제외한 부대의 '군사업무담당'은 현재 자신의 직책별 고유 업무에 군사(軍史)업무를 추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업무에 덤으로 따라온 업무, 즉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업무 정도로 인식하고, 평시에는 무관심하다가 정기역사 제출시기가 다가오면 지난 회의록과 주요 언론 보도내용 등을 참고로 급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그러나 자신의 직책에 '군사업무담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그러한 직무경력이 개인의 자력에 쌓여서 군사업무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군사업무담당' 보직기간에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역사적 존안가치가 있는 업무를 식별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직무습성이 생길

63) 2018년 7월 1일부로 개편된 육군군사연구소 기구도의 예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좋은 1차 사료를 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군사업무' 부특기[64] 신설이다.

현재 육군의 경우 부특기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관리제도를 보완하여 '군사업무'를 부특기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앞서 기술한 군사업무담당 등 군사업무의 근무경력과 관련학위 등을 고려하여 부특기를 부여하고, 타 부서 전출 시에도 부특기를 고려한 관련 업무를 부여한다면 '군사업무담당'의 지속적인 임무수행은 물론 전문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군사업무담당'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증대

군사(軍史)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1차 사료를 제공하는 '군사업무담당'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국방부 및 합참에서 국방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군사(軍史)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역사의식과 양질의 사료를 식별하는 능력이 어쩌면 집필하는 담당연구자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업무담당'의 전문성 향상과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각 군별 지속적인 소집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군의 특성상 1~3년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는데 그 기간 중 1~2회 정도의 정기역사자료를 작성하면 새로운 보직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며, 보직이 변경된 부서는 새로운 실무자가 새롭게 업무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년 1회 정도의 소집

64) 육군의 경우 28개의 직능특기 중에 14개 부특기(인사관리, 인력획득, 인사근무복지, 조직편성, 교육훈련, 연합합동작전, 교리연구, 특수전, 군수관리, 군수지원, 동원관리, 정책기획, 군사전략, 전력)를 운용하고 있다.

교육 및 순회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는 반드시 소집교육에 참가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 '군사업무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서 발표한 현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43개 과정 2,63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65]

'군사업무직무교육'의 경우도 직무유형별 교육기간을 산정하고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한다면 군사업무담당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아래 〈도표 44〉는 국방대학교 군사업무담당 직무교육 계획의 예시이다.

〈도표 44〉 국방대학교 '군사업무 직무교육' 계획(예시)

구 분	오 전		오 후	
1일차	개강식	대한민국 역사 개관	현대사로 보는 국방역사	
2일차	각 군의 역사 소개		현장 견학(국가기록원)	
3일차	국방정기역사서 작성 및 절차		효율적 자료수집 방법	수료식

이러한 직무교육은 각 제대·담당분야별로 차별화된 교육편성이 가능하며, 군사편찬연구소의 전문연구원을 강사로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교육진행이 가능하다.

셋째, 군사업무담당자는 직무의 전문성과 더불어 역사적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본인이 수집하여 구축된 자료는 신뢰성이 생명임으로 정확한 자료출처를 기록(제시)하고, 개인의 편견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작성하는 분야

65) 국방대학교, 『국방분야 핵심인재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발전 세미나 자료집』, 2019. 11.14.

의 업무성과와 실적도 중요하지만, 부대의 사고나 과실 등의 사실도 누락됨 없이 포함하여 실적 위주의 편향된 역사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사업무담당자는 현재 수집하고 작성하는 역사적 자료가 국가와 군의 정통성을 구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장 실적이 나타나는 업무가 아니라도 미래를 위한 성실성과 묵묵한 업무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조직편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충되더라도 역사편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1차 사료수집임을 서두에서도 강조하였다. 지금과 같이 국방부훈령에 포함된 통제 조항과 담당연구원의 노력으로는 좋은 1차 자료 수집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1997년 이전에는 국방부 국내정책과에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수집관이 파견되어 자료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 1일부로 자료수집관이 철수하면서 연구소에서는 자료수집 절차 및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2000년 군사편찬연구소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되면서 2003년 국방부훈령인 군사(軍史)업무규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국방부훈령에는 국방부의 각 국·실과 직할기관(부대)에서 임명된 군사업무담당이 당해연도 업무추진 실적을 작성하고 부실별로 종합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군사편찬연구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분석한 것처럼 기간준수와 자료수집 내용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내용면에서 통계적 내용은 활용가치가 있으나 정책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각종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이나 주요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원자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화시스템에서는 1997년 이전처럼 연구소의 자료수집관이 국방부에 파견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온나라시스템에 의한 원 자료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원 자료의 수집은 시스템과 규정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보완방안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배부선 관리이다.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회의록, 정책결정에 대한 장(차)관 결재문서의 배부선에 군사편찬연구소(정보자료실, 연구관리담당)가 포함되어 전자문서나 메모보고를 통해 수시로 접수되어야 한다. 연구소에 접수된 문서는 정보자료실과 연구관리담당을 통해서 관련 부서 및 연구원에게 공람되면 현재와 같은 추가적인 노력 없이 지속적인 1차 원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비밀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목록을 제공하여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문서의 제목과 생산부서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요 문서의 제목이나 1차 자료가 접수되면 그 자료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 정기역사서 편찬에 활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 된다.

둘째, 기록물관리시스템의 보완이다.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접속권한(열람 권한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고려하여 선정)을 부여하여 국방부 장(차)관 결재문서,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의 결재를 통해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열람(비공개 문서는 문서제목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전시(戰時) 자료 수집을 위한 여건 조성이다.

자료수집체계는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전시에 국방부·합참 지휘소 그리고 정부종합상황실에

서 '군사자료수집단'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전시의 모든 비밀문서의 자료공유는 우리 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군사편찬연구소는 KJCCS 장비도 인가되어 있지 않고,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66]도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표 45〉와 같이 KJCCS 장비의 인가와 정부/국방종합상황실, 합동지휘통제본부 등에 연구소 '군사자료수집단'이 위치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장소와 통신장비가 편성되어야 한다.

〈도표 45〉 전시 군사자료수집단 운용 방안(예시)

구 분		정 부	국방부	합 참
장 소		정부종합상황실	국방정책실	전력발전실
협조부서		행정안전부	기본정책과	합동개념발전과
전시편성		○	○	○
협조 내용	좌석	○	○	○
	유선	군사상황반 장비사용	○	○
	KJCCS		○	군사연구과 장비사용

4. 활용성 높은 역사서 편찬 및 관리체계 구축

국방역사서를 편찬하는 목적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국방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는 중요한 역사서는 비밀로 발간되어 일반학자나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활용성이 떨어지고, 평문인 많은 자료들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66) 군사편찬연구소 「임무수행철」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전시계획 및 통제를 수행하는 국방부·합참의 전시지휘소 편성에는 누락되어, 매년 실시되는 전시 연습 간에는 추가적인 실무협조를 통해 임무 수행

자료의 활용성 제고와 효율적 자료 관리를 위한 3가지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비밀등급 및 비밀 예고문 조정이다.

앞서 언급한 군사편찬연구소의 『국방부사』는 Ⅱ급 비밀, 『국방사』의 경우에는 대외비로 발간된다. 각 군의 경우에도 『합참사』, 『육군사』, 『해군사』, 『공군사』, 『해병대사』는 Ⅱ~Ⅲ급 비밀로 생산되어 장기간 관리가 어렵고, 군의 간부들도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편찬내용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활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안등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제③항을 근거로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평문으로 등급을 전환하도록 예고문을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차후 평문으로 전환되어 일반열람실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비밀자료 관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방부 및 국직부대 정기역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각 군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된 "육군 부대상보·부대사 기록 관리체계", "해군 부대계보관리체계", "공군 계보/일지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와 같은 "정기역사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향후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이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필요하다.

셋째,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공유체계 구축이다.

2019년 10월 기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보유한 소장 자료는 103,674건이다. 이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2021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67] 아카이브 체

67) 2020년까지는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록 등 기본기능을 개발하여 디지털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활용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계가 구축되면 민원처리의 시간 단축은 물론, 1950년대 미·중·러시아 측 문서를 포함한 외국수집자료 등 구축된 사료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안보 의식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표 41〉에서 제시된 유관기관 간의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한 자료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소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서비스 제공이다.

감수와 심의를 통해 발간된 책자도 오류수정이나 개정소요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한번 발간된 책자의 개정판 발간은 쉽지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책(E-book) 서비스를 통해 종이책의 수정소요 등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연구·편찬된 책자는 800여 권에 달한다. 그 중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원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책자는 556종이다. 반면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는 책자는 없다. 현재 국군인쇄창은 전자책(E-book) 파일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고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전자책(E-book)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목표이다. 2021년에는 구축된 디지털아카이브 관리시스템에 군사자료의 웹서비스를 제공, 디지털 자료 이용을 위한 검색기능 제공, 자료 검색 및 시스템별, 매체별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색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Ⅴ. 결 론

Ⅴ. 결 론

19세기 스위스의 역사가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는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한 시대에서 기록할 만하고 판단한 것의 기록”이라고 정의하였다. 역사는 그 시대의 인물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후세의 역사가에 의해 기술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현재의 환경에 지배되어 기록의 보편성과 객관성이 무너지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부대사』,『국방부사』등 국방정기역사는 집필자의 생각과 해석을 통해 국방업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아닌, 있는 사실과 과정을 왜곡됨 없이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후 국방정책 및 전략수립에 활용하고『국방사』나『국방변천사』와 같은 국방정책서 등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사서라는 점이다. 즉, 후세의 역사가들이 국방역사를 기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1차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국방정기역사가 온전한 역사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4장에서 제시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편성 및 인사관리제도 보완, 군사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증대,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활용성 높은 역사서 편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임무수행이 가능한 조직편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방부 및 각 군 연구기관의 조직 보강을 통한 연구인력 확충과 국방부 본부 및 예하부대 군사업무담당의 인사관리제도 보완을 통해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군사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업무담당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등 직무교육의 제도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무엇보다 군사업무담당의 역사적 소명의식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은 좋은 1차 자료수집을 위해서 주요문서의 배부선에 군사연구기관을 포함시키고, 연구원들의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접근성 향상대책과 자료수집을 위한 장비 편성 등이 절실하였다. 특히 자료수집에서는 온나라시스템에 의한 국방부와 합참의 평시 자료수집체계와 각 군 연구소와 통합된 기록물관리 및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활용성 높은 역사서 편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비밀로 발행되는 정기국방역사서의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국방부 및 직할부대의 정기역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아카이브 및 자료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 리더십인 최고책임자의 관심과 역할이다.

현재도 유관기관별 자료수집 및 협력업무의 여건이 제한적인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국직부대(기관)의 지휘체계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료수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연구가 국방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기 국방역사 편찬체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17.3.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2.2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200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軍史)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103호」, 2017.12.2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사편찬위원회 규정」, 1964.8.7. / 1969.12.9. / 1980.3.8. / 1992.7.7.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쟁기념사업회법-법률 제4076호」, 198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법률 제1506호」, 1963.12.14.

국방부, 「국방부 일반명령 제4호」, 1964.2.24.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1992.

국방부, 인트라넷 "국방조직정원체계"

국방부, "국내 24100-24 국방부사 편찬 지시" 1985.8.31.

국방부, 「군사(軍史)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2103호, 2017.12.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2006.8.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편찬 세미나" 자료집,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역사 편찬 워크숍" 자료집, 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2019.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차관 업무보고」, 2019.6.12.

국방대학교, 『국방분야 핵심인재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발전 세미나 자료집』, 2019.11.14.

공군본부, 「군사업무」 공군규정 15-11, 2017.12.20.

공군본부, 인트라넷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홈페이지"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5 군사업무 전문교육" 자료집, 2015.

육군본부, 「군사업무규정」 육군규정 930, 2019.1.1.

육군본부, 인트라넷 "육군연구소 홈페이지"

합동참모본부, 「군사(軍史)업무」 합참규정 F-535-01, 2014.9.15.
해군본부, 「군사업무규정」 해군규정 제2304호, 2017.11.20.
해군본부, 인트라넷 “해군역사기록관리단 홈페이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부대사, 정기역사보고서 편찬관계관 회의” 자료집, 2012.
해병대사령부, 「군사업무규정」 해병대규정 제180호, 2016.1.8.
해병대사령부, 인트라넷 “해병대군사연구소 홈페이지”
김득중, “공간사 연구편찬 절차 및 요령”, 2019.10.10.
김종숙, “국방역사 연구편찬에 관한 제언”, 2012.5.22.
박균용, “국방부사 편찬과정 및 발전방안”, 2018.6.12.
박균용, “국방정기역사 작성실태 및 발전방안”, 2019.10.10.
박창남, “군사사(軍事史) 기록의 원칙’ 정립 안 검토”, 2018.4.18.
백기인, 『건군사』, 2002.12.10.
신영진, “국방사부 역사 및 업무의 중요성”, 2000.12.21.
안치호, “국방부 자료실 기록물 관리실태”, 2000.12.21.
조성훈, 『외국군사사연구기관의 조직과 활동』, 2006.
이병태, “국방사 편찬 연구에 관한 제언”, 2000.12.21.
임성채, “군 역사편찬의 특수성 및 발전방향”, 2012.5.22.
한용섭, “국방역사 시기 구분에 관한 연구”, 2012.5.22.

【용어의 정의】

국방사(國防史) 국방 관련 정책, 조직, 제도, 군비, 전력증강 등의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

국방부사(國防部史) 국방부본부, 합참, 직할기관 등의 주요업무실적을 기능별로 수록한 역사

국방역사(國防歷史)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 등이 수행한 주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정리한 역사

군사(軍事) 군대,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

군사(軍史) 부대 또는 군 조직의 제반 군사활동(軍事活動)에 대해 수집한 역사적 기록이나 기념물

군사사(軍事史) 전쟁 및 제반 군사문제와 그에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적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군사업무(軍史業務) 군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업무

군사업무담당(軍史業務擔當) 각급 부대 및 부서에서 부대상보와 부대사 기록 등 부대의 정기역사자료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명된 실무자

군사자료(軍史資料) 전 · 평시 국방활동에 관련된 군사적(軍史的) 가치가 있는 문서, 도서, 수기(手記), 면담록, 지도,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마이크로필름 등의 자료

기록(記錄) 어떤 사실을 뒤에 남기려고 적음. 또는 그런 글, 서록(書錄)

기록물(記錄物)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발전사(發展史) 각 군(병과) 조직이 발전하여 온 과정에 관한 역사서

변천사(變遷史) 부대(서)가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변한 과정을 편찬한 역사서

부대사(部隊史) 독립여단급(장성급) 이상의 부대(서)의 연간 주요활동을 기록한 역사서

부정기역사서(不定期歷史書) 각급 부대(서)에서 역사적 사실을 수록하여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모든 역사서

부대계보(部隊系譜) 영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주요활동을 기록하는 부대역사 자료로 한 부대의 창설 초창기 이래 계승되고 있는 전통을 말하며, 부대의 특성과 조직을 변경시킨 중요한 사건을 기술

부대상보·부대사 기록 관리체계 육군의 각급 부대에서 작성한 부대상보와 부대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육군 역사 기록 및 관리' 프로그램

서록(書錄) 개인이나 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 및 업무 처리 과정의 증거로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해 생성, 접수, 관리, 활용되는 문서

전쟁사(戰爭史) 직접적인 전쟁행위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말하며, 국내 · 외 전쟁사, 해외파병사가 포함

전투사(戰鬪史) 전쟁을 수행하는 부대들 간에 직접적으로 맞부딪혀 싸우는 군사행동을 기록한 역사

전투상보(戰鬪詳報) 전 · 평시 주요 작전에 참가한 각급 부대가 작전 종료 후 작성하는 주요 작전활동을 기록한 보고서

편찬(編纂)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을 만듦.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여 흩어진 것을 모아 정리하는 것. 주로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일정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기존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사, 전쟁사, 군사사 및 국제분쟁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군사(軍史) 연구기관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그동안 군사사, 전쟁사, 국방역사에 관련된 다수의 단행본 및 정책연구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의 국방역사서 편찬 경험과 정기 국방역사 편찬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방역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지침서가 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정책에 기여하는 국방역사서 발간을 위해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설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하신 설문서는 FAX 또는 우편, E-mail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 담당: 박균용 책임연구원 / 02-748-1673/smilebel@mnd.mil

※ 설문서 보내실 곳 smilebel@mnd.go.kr / smilebel@hanmail.net
FAX: 02-748-1638

순번	평 가 문 항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연구자료집으로 역사성·완성도 높은 연구가 되었는가?					
2	책의 구성과 내용은 논리적·사실적·객관적인가?					
3	인용자료의 적합성·객관성·충실성은?					
4	국방역사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					
5	국방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는가?					
6	관련 연구·교육, 장병정신교육자료로 활용도는?					
기타 보완 및 제안사항						

※ 적극적인 설문조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자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저자 박균용(朴均龍)**

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연구위원

군사학박사(국방정책/전략전공)

행정학석사(정책전공)

전 대전대 외래교수

□ **주요 저서**

『국방부사 제11집 2013-2014』(공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국방조약집 제10집 2013-2015』(공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명강사 25시』(공저, 행복한 에너지, 2015)

국방역사 편찬과정 및 발전방안 연구

2019년 12월 24일 인쇄

2019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처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88 FAX : 709-3111

인쇄처 국군인쇄창(M191214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